

중국대학교

14대 대통령 선거가 끝났다. 93년 새해가 시작됐다.

민자당 김영삼 후보가 당선됨으로써, 광역 자치단체장 선거는 시간을 두고 실시하겠다는 그 당의 공약에 따라 향후 몇년 동안은 전국적 규모의 선거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올바른 선거문화의 정착을 위한 언론의 역할이라는 이 글의 주제가 당면의 주된 관심사로 대두될 일은 당분간 없을 것이다.

그러나 민주주의라는 정치체제를 작동시키는 기초 토대가 보통선거라는 점과 이같은 토대를 내실하고 원활하게 가동시키는 데 언론의 역할은 필수적이라는 점, 그리고 언론의 제대로 된 역할이라는 것이 선거 등을 계기로 하루 아침에 자리를 잡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같은 주제를 이 시점에 다루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특히 전국민적 관심사 속에서 치러진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얼마 안된 시점인만큼 선거 기간 중 언론 매체들이 보여준 선거 관련 보도를 평가하는 가운데 올바른 선거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언론의 역할을 비판적으로 되돌아 보는 것은 나름대로의 의의를 가진다 할 수 있겠다.

선거에서 언론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은 굳이 강조할 필요조차 없다. 14대 대선에서 유권자들의 80%가 후보를 고르는데 필요한 정보를 얻는 정보원으로 TV, 신문을 꼽는데서도 이같은 사실이 분명히 입증된다. (기타 정보원으로는 주위 여론 8.9%, 후보유세 6.4%, 책·팸플릿 0.6%) 특히 언론매체 중에서도 TV뉴스, TV연설을 보고 후보를 선택한다는 유권자가 55.1%(신문보도는 24.9%)로 나타나 TV의 막강한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언론은 그 힘을 어느 방향으로 쓸 것인가. 이점에 대해서는 매우 비판적일 수 밖에 없으며 TV 경우는 특히 더 그러한다 그 이유를 살펴보자.

14대 대선 선거보도와 관련 언론계 안팎에서 제기된 비판 중 대표적인 것은 △기득권 세력(정부와 민자당)의 입맛대로 선거 행정이 강조, 부각되거나 취소, 축소되었을 뿐 아니라 행정의 생산, 폐기까지도 그들의 요구에 충실히 부응했고, △고질적인 정부, 여당 편들기가 이번에도 예외없이 행해졌다는 점이다.

우선 앞부분과 관련된 내용을 검토해 보자.

'행정'이라는 것은, 특히 선거기간 중의

그것은 모든 유권자들의 관심을 한 곳으로 모아지게 하는, 후보들을 둘러싼 특정 현안으로 이에 대한 유권자들의 판단 여부는 후보 선택과의 연계도가 높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각 후보 진영에서는 투표(혹은 감표)의 유·불리에 따라 어떤 행정은 부각시키고 어떤 행정은 희석시키려 노력하며 이는 당연한 현상이다.

이 경우 언론들이 해야 할 일은 행정화되는 사안이 객관적으로, 사회적으로 타당한 의의를 가지고 있는가, 진정으로 유권

특히 김복동 납치사건을 비롯한 편파수사, 김기춘 장관 부산 회동, 박태준 시비 등에서 관권의 개입 흔적이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대다수의 신문과 TV는 이에 대해 부관심한 태도를 보였다. 따라서 분명히 존재했던 관권의 부당한 행사가 지면과 화면에서는 실종되고 만 것이다. 14대 대선 과정에서 관권의 부당한 개입이 상당히 줄어들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인 듯하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상대적 평가로, 그동안의 노골적이고 총체적인 관권 부정과 비교해서 그렇다는 것이지 마땅히 근절

왜일까. 민자당에 불리하기 때문이다. 유권자들의 요구는 여기서 별로 중요치 않다. 언론의 공적 책임이 특정 정파의 이익에 종속되어 버렸다.

다음으로 지적될 언론의 문제는 정파 이해를 앞장세운 행정 다루기와 맥을 같이하는 사안인데, 그것은 특정 정당 편들기식 보도 태도이다. 이같은 태도는 민자당에 불리한 기사 죽이기, 다른 당에 불리한 기사 키우기, 특정 정당에 국한된 문제를 이당 지당 모두 문제였다는 식으로 다루는 제비(諸非)론으로 나타났다.

시계사건은 TV보도에서 홀대 받았으며 비교적 그리고 상대적으로 선거 기간 중 긍정하고 객관적인 보도태도를 유지했다고 평가받고 있는 동아일보에서까지 민자당에 불리한 기사를 삭제한 것은 '기사죽이기'의 대표적 사례이다.

대학생 일당 동원인 특정 정당에서 주로 발견됨에도 모든 당을 싸잡아 '두드리는' 기사도 한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밖에 많은 사례가 있지만 생략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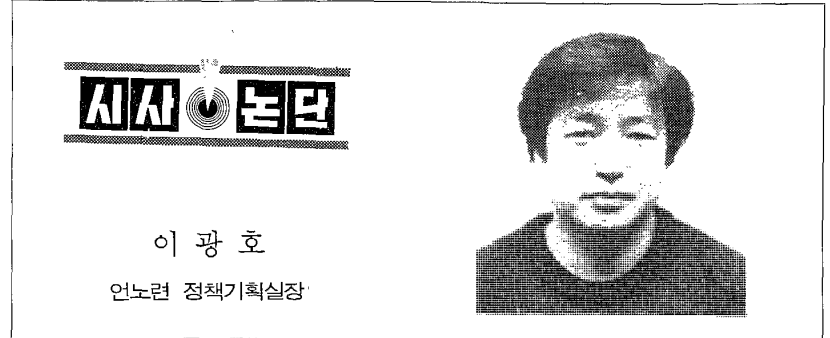
이같은 '편들기'현상은 왜 나타나게 되었을까.

그것은 언론이 스스로 내세우는, 국민앞에 선전하는 공적책임과 역사적 책무에 충실하려하기 보다는 언론 자본의 사적 이윤 동기, 언론사 상층부의 지배 집단과 자신을 동일시화하는 의식 등에서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결과 언론은 권력과의 긴장관계를 유지하며 권력의 행위를 감시하는 견제 기구로서의 역할을 포기하고 손주관 전공보적 장관의 말(언론은 통치 기구의 한 부분이다)처럼 변화와 진보를 고려하면서 의사 개량을 앞세운 기록, 보수세력으로 깊숙히 편입되어 버렸다.

어쩔 수 없이 엄청난 현실로 존재하는 지역감정이라는 우리 현대사의 '질곡'을 깨뜨리고 학연, 혈연 등 연줄이 힘을 발휘하는 선거풍토가 사라지고 후보개입뿐 아니라 그정당의 정책과 인적, 물적 토대를 분석하며 사회의 각 계급, 계층이 그들의 이익을 대변해 주는 정당과 후보를 뽑을 수 있는 선거풍토를 정착시키는 것, 그리고 엄청난 규모의 돈을 가진 자들만이 정계에 뛰어날 수 있도록 되어있는 선거제도를 개선하는 것, 이러한 것이 올바른 선거문화가 아닌가 한다.

언론의 역할이란 이같은 선거문화풍토가 제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이 광 호
언론권 정책기획실장

그릇된 선거풍토 만드는 언론

자본·권력 결탁 근절돼야

자본의 관심을 집중시켜야 할 중대 사안인가를 선차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같은 판단을 모든 언론에게 똑같이 하라는 요구는 가능하지도 않으며 그래서

도 안된다.

구체적 사례를 들어보자. 14대 대선 과정에서 등장한 행정화(총본히 부각되지 못했거나 과도하게 부각된 것까지 포함)은 금권타락, 관권연일, 편파수사, 색갈시비, 자질문, TV토론 시비, 부산 지역기관장회의와 도청 시비 등이었다.

후보의 입장을 떠나 사회적 중요성으로 볼때, 국민당에 주로 거남된 금권선거 못지않게 한준수 연기군수의 관련 부정 폭로 이후 대통령이 발명을 하면서까지 강조했고 우리 선거사상 고질적인 부분인 관권의 부당한 개입 또는 행사 역시 언론의 주목, 감시 대상이 되기에 충분했다.

되어야 할 여러형태의 관권 개입이 모두 사라졌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보수정당끼리의 무의미한 용공시비, 철 지난 가짜문제(언노련 대선보도특위 신문 분과 보고서)인 색갈문을 선거박판에 최대한 부각시켰던 언론들은 우리 국민에게 여전히 냉전식, 전투적 반공논리의 새장안에 갇혀 살도록 강요하여, 우리국민을 냉전 체제가 해체되고 있는 세계적 조류로부터 고립시키는 반역사적 오류를 범하고 말았다. 이 문제는 누가 당선되느냐의 문제보다 훨씬 중요하고 심각하다.

국민 절대다수가 원했던 TV토론을 성사시키기 위한 언론의 노력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으며 TV는 이에 대해 무관심했다. TV토론 무산의 실질적 원인을 찾는 노력—전혀 어렵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의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

93학년도 등록금협상을 전망한다

학교측...16%~18%시사 인상을 공방보다 재원마련 쟁점될 듯

93학년도 등록금협상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본교 1년예산을 담담하고 있는 예산조정과에서는 93학년도 등록금 인상폭을 일단 최소 16%로 계획하고 학생들과의 추후 협상에 따라 16%에서 18%사이로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학생들에게 특별히 민감한 사안인 등록금인상이유에 대해 학교측은 "현재 본교의 등록금수준은 서울 지역 대학교 평균 등록금에 비해 낮은 실정"이라며 등록금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본교의 경우 학생들이 요구하는 장학금확충, 부대시설 확충 등 복지부분에 투자가 되려면 불가피한 인상을 고려해 최소 18%정도 인상될 것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제25대 총학생회 산하 학원 자주화추진위원회(이하 학자투위, 임시위원장=김수정·사학)는 93학년도 등록금투쟁에 대비, 총학생회장선거후 곧바로 등투임시위원회를 구성하여 학교 기획조정실 예산 조정과와 등록금협상을 준비중이다.

작년 제24대 총학생회의 등록금 투쟁이 결국 재단학식동의 학자사업으로 연계가 부족했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의 지적에 부응, 연계성부

분에 주력할 방침이라는 학자투위측은 이번 등록금투쟁에서 성공적 성과를 남긴후 학생들의 신뢰를 기반으로 이후 학자사업, 즉 장학제도의 개편, 재단전입금 확충, 신규교수채용에 학생참여등 재단혁신과 학생복지에 연결짓는 사업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학자투위는 올해 등록금협상에 있어 금액의 몇%인상이냐라는 단적인 부분보다 교육적 측면에서 바람직하게 쓰인다는 보장이 있다면 협상은 원만하게 타결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여기에 따른 선행조치로 학교측은 92학년도 합의사항인 예·결산내역을 공개해 서로 신뢰하는분위기의협상을 제안하고 있다.

한편 해마다 등록금협상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신입생 등록고지서의 인상액적용 일방발부에 양측은 대립된 분위기이다. 학교측은 학사행정과 시간상의 이유를 들어 예년과 같은 일방고지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올 입시는 대입평준화로 늦춰진 탓에 일정등에 차질이 많아 이러한 점은 더욱 강조되는 형편이다.

그러나 학자투위측은 신입생들이 일단 인상된 등록금을 납부하게되면 92년과 같이 알맹이 없는 성과만 남게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대안으로 우선 신입생들에게 작년 신입생 등록금수준으로 통계를 발표하고 추후 인상폭이 타결

되는대로 추가고지함을 상정하고 있다.

또한 올해도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일방적 인상예고지후 다시 불공으로 환불하는 형태에 대해 학자투위는 "금예환불도 아닌 불공환불은 결국 학교측이 마땅히 투자해야 할 부분에 투자한 것밖에 안되는 것"이라며 올해 등록금투쟁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경주캠퍼스와의 연대투쟁도 올해 등록금투쟁의 중요한 사안이다.

이직 상권해와 기본적 공유안 이뤄진 상태이지만 연대문제의 결의만큼은 어느때보다 강하다고 평가돼 다수의 학생들이 우려하는 노선과의 차이에 구애됨없는 공동투쟁에

는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올해도 변함없이 들불처럼 피어오를 등록금투쟁. 많은 학생들도 잘 알듯이 본교의 교육재정, 특히 대부분의 사립학교 교육재정부분은 열악한 실정이다. 또 현행 사립학교법의 '수혜자 부담의 원칙'강조도 가혹이나 열악한 교육재정을 부채질하고 있다.

그러나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때 대학이라는 교육기관에서 생산된 지식인들이 사회에 진출, 국가의 발전에 기여한다고 보면 결국 궁극적 수혜자는 바로 국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교육재정에 국가와 재단의 올바른 투자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재단과 학교측의 교육재정에 대한 논쟁, 일례로 신촌 봉원사 부지매각이랄까. 재단전입금내역 공개등이 필요하다.

또한 여기에 발맞춰 학자투위의 주체발굴을 통한 활성화로 지속적 인 학자내용의 생산 및 사업전개를 비롯해 학생을 저변에 깔려야 할 학교의 주인으로 서겠다는 의식의 각성도 결코 패배할 수 없는 또 하나의 관건이다.

<김대규 기자>

사설

어느해보다 중요한 재단의 역할

계유년(癸酉年) 새해아침이 밝았다. 우리대학교 개교87주년을 맞으며 개교 1백주년을 앞두고 '최고의 민족사학'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움직임이 부상한다.

먼저 최고의 사업이자 동국부흥의 상징인 '동국학술문화관' 공사가 시작된다. 아울러 경주캠퍼스 기초과학관 및 건물개·중축이 마무리공사에 접어들고 우수한 교수확보를 위한 학교당국의 노력은 올해에도 계속될 것이다. 동국학술문화관의 경우, 대학원심성의 대학으로 전환하여 학문의 국제화와 세계화를 꾀하고 나아가 세계속에 '동국'의 명성을 떨칠 수 있는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동국의 미래를 밝힐만한 큰 공사이다. 내부적으로는 1백50억 이상의 공사비 마련과정에서 전 동국인과 동국가족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주인없는 대학'이라는 수치를 거부하고 모든 구성원이 주인이 될 수 있는 의미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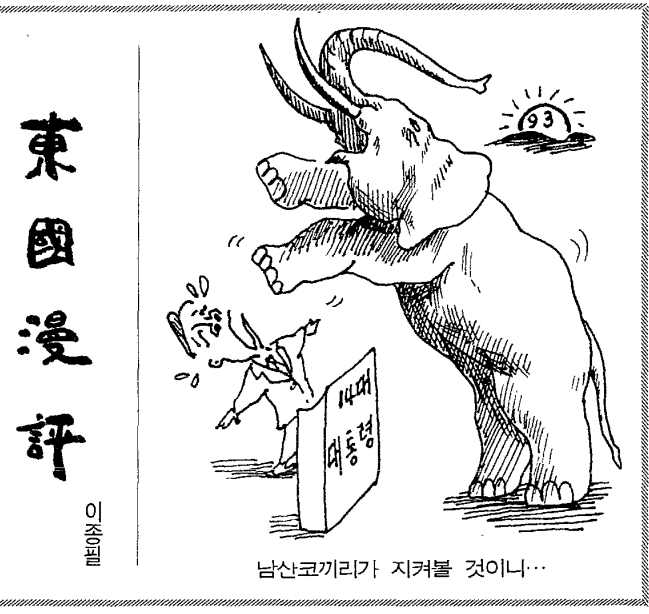
그러나 동국의 미래가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 줄 동국학술문화관 완공에 대해서 부정적 의견을 갖는 사람도 적지 않다. 학교당국으로서도 1백50억 이상의 공사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난관에 부딪혔고 학생들은 매년 15%이상 인상되는 등록금에 대한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교수나 직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제 대학은 한나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와 경쟁해야 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폭넓은 공감을 얻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학교에 있어 학술문화관의 의미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소위 '명문사학'을 제외하고 국내 모든 사립대학이 구조적으로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다. 정부의 교육비지원정책의 미흡함이나 기업의 교육지원 부족의 영향도 있었지만, 사립대학의 모든 정책을 결정하고 운영하는 재단의 관리문제를 가장 크게 지적할 수 있다.

동국학원은 총9백35만평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2천여명의 교직원과 1천여억의 예산을 관리하고 있다. '한국최고의 재단'이란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이런 동국학원이 최근 몇년동안 본교를 위해 무엇을 했는가 돌이켜 보면 대학 체제체들의 불만과 침체의식을 짐작케 한다. 지난해 본지에서는 '우리 재단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기획을 통해 재단혁신의 전반적인 방법을 제시했었다. 또한 88년 이후 학내구성원의 재단혁신에 대한 요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물론 재단으로서도 어려움은 많다. 학생들이 요구하는 신촌 봉원사부지매각이나 소유토지 매각이 그랜드프란츠 총단과의 문제로 쉽지 않으며 자산형태와 자본의 유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교육투자가 쉽지 않다. 더욱이 조세중 종단 상충주의 파행적 불교재산관리도 우리재단의 입장을 곤란하게 하는 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민족동국을 위해 발벗고 나서려는 노력이 어느때 보다도 시급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학문의 국제화와 세계속의 대학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사학발전 위한 자본의 확보가 절실한 상태다. 그리고 이것을 1차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게 동국학원이다. 9백만여평의 토지소유를 관광 교육용 시설로 활용한다거나 불자·동문들의 기부금영입 등을 적극 유치하는 방법을 모색한다면 학교당국이 겪고 있는 고질적 재정난은 점차 타개할 수 있는 것이다.

93년 계유년은 우리 동국에게 중요한 한해가 될 것이다. 재단이 학교발전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는 오히려 재단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93년에는 동국의 잠재력을 적극 개발, 활용하는 현명한 지도자가 나타나길 동국 전가족이 바라고 있음을 재단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다.



남산코끼리가 지켜볼 것이다...

종합 건축자재 전문회사·벽산

40년 전통에 자만하지 않습니다.

종합 건축자재 전문회사임을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벽산의 품질은 틀림없다는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벽산은 품질관리에 남다른 신경을 씁니다. 다른 건 몰라도 품질 하나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는 기업입니다. 내 집의 내장재를 만들 듯이, 우리 빌딩의 외장재를 만들 듯이— 벽산은 공정 하나하나, 품질 하나하나에 완벽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건축관계자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벽산의 마크는 품질보증의 마크라고—

벽산의 주요생산품
●내장재 : 석고보드/방수이음/계선보드/이장보드
●한정재 : 이소칼/유리칼/아스텍스/지바트/아마트/석고보드/유리보드
●지붕재 : 스텝/방수이음/아스텍스/지바트
●단열재 : 암반/유리칼/아스텍스/지바트
●배관재 : 폴리카보네이트/폴리카보네이트
●외벽재 : 배스/방수이음/유리칼/아스텍스/지바트
●바닥재 : 배스/방수이음/유리칼/아스텍스/지바트
●내화피복재 : 코트라
●페인트 : 건축용/공업용/목공용/선박방수용/특수용
●기 타 : 석고보드/석고 조인트/코르크판

건축자재전문회사
벽산
TEL. (02)260-6215~20



제14대 대통령선거 결과

지역감정에 허물어진 4천만의 희망 민자당 압도적 지지—신정당 신선했던 바람 민민운 '새로운 방향찾기' 논의 활발할 듯

제14대 대통령선거가 18일 투표로 마무리됐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국민당의 금권선거와 민자당의 관권선거 시비가 일간지의 주요 '먹이감'이 됐고 투표전날까지 분위기는 '정권교체의 가능성이 어느 대선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개표결과를 어느정도 예상했던 대로 집권당 후보가 당선되었다.

특히 민주당과 전국연합간의 정책연합이 타결되고 민민운의 선거운동이 대중적으로 확산된 가운데에도 1백80여만표차로 민주당이 패배한 결과는 93년 이후 재야세력에 커다란 충격과 혼란을 줄 것이라는 지적이 높다.

'정권교체'를 위해 모든 변혁세력이 단결했음에도 그 뜻이 좌절된 이번 대통령선거를 평가해 본다.

<편집자>

제14대 대통령선거 결과

총유권자 2천9백42만2천6백58명, 투표자수 2천4백9만1백70명, 81.9%의 투표율. 역대 직선대통령선거 투표율중 밑에서 두번째를 기록했다. 물론 기초·광역의회선거보다는 높았지만 이번 선거역시 젊은 유권자의 '기권'현상이 재현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의 참패

선거 전날까지 5%내외의 약세를 보인다는 예상과는 달리 1백93만5천6백56표차를 보이며 정권교체에 실패했다. 민주당의 참패는 다른 보수야당의 패배와 다른 의미를 갖는다.

우선 전국연합과의 정책연합 타결이후 재야세력은 '범민주단일후보'로 김대중씨를 결정했으며 학생들의 공경선거운동에서도 '반민자'·'정권교체'의 입장을 분명히 했었다. 또 민주당을 지지한 시민들의 경우 "김대중 개인에 대한 지지리키보다 정권교체를 위해 당선가능한 야당을 지지했다"라는 답이 일반적이었다.

따라서 개표결과를 민중민주운동 진영의 패배로 확대할 수 있다. 더욱이 1백여만표의 차이는 한동안 민민운 진로와 조직력에 혼란과 침체를 가져다 줄 것으로 보이며 '새로운 방향찾기'논의가 뜨겁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정당의 선전

지난해 3.24총선당시 전국 1백11개 지역에서 1.8%의 득표율에 그쳤던 신정당계파의 선전은 예상외의 결과였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양강체도 실패 백기회복의 공약에도 반감을 갖은 젊은 유권자층에게 깨끗한 선거운동으로"소신표를 얻었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박찬중후보의 '깨끗한'선거운동과 '새대교체'주장이 기존 제도정치에 불신을 갖고 있는 젊은층에게 호소력을 주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골절된 제도정치권 내에서 앞으로 신정당이 얼마만큼 의미 있는 세력으로 존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예상이 앞서는게 사실이다.

민중후보진영의 진로

대통령후보 선정부터 자금마련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백기환 후보의 저조한 득표도 예상외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백후보 진영은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창당적임을 서두를 것을 밝혔다. 이미 '당선'을 목표로 삼지않고 선거운동과정에서의 성과로 토대로 대선이후 '진보정당을 건설하겠다'는게 백후보진영의 목표였다.

선거운동과정에서 민중회의, 진보정당추진위, 사회당추진위, 민중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청년연석회의 등 4개 단체를 한데모는 성과와 함께 지구당건설에 결정적 바탕이 될 수 있는 지역단체(지역선거본부)도 마련하는 등 조직력의 틀을 갖추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정당운영에 필요한 안정

◇제14대 대통령선거 각후보 득표수 및 득표율

민 자 당	민 주 당	국 민 당	신 정 당	무 소 속
김 영 삼	김 대 중	정 주 영	박 찬 중	백 기 환
9,977,332	8,041,284	3,880,067	1,516,047	238,638
41.4	33.4	16.1	6.3	1.0

(단위: 명 %)

적인 자금확보와 이후 선거에서의 지지율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또 내부에 존재하는 서로다른 정권의 '조화'도 문제로 지적된다. 무엇보다 이번 대선 개표결과 군단위의 농·어촌 등 중도시 이하의 득표가 적었던 사실을 보면 진보정당 창당 이후에도 과거 민주당의 전철을 밟지 않을 것인가 우려하는 여론도 적지 않다.

민자당의 압도적 지지

김영삼 후보의 득표율은 지역세를 탄 부산, 경북, 경남에서도 높았지만 전국적으로 고른 분포를 보였다. 국민당이 우위를 지킬 것이라는 강연도나 제주개발특별법으로 '반민자'의식이 높았던 제주도에서도 우위를 지켰다. 언론에서는 국민은 '안정속의 개혁'을 바란 결과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김영삼 후보의 압도적 지지는 △정권교체후 구체적인 국가운영상이 불분명하고 △이종찬 후보의 사퇴 △국민당의 부진과 관권의 개입, 언론매체의 도용이 크게 작용한 결과로 꼽아하는 사람도 많다. 무엇보다 해방이후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가 한번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은 아직도 '막연한'안정을 추구하려는 정서를 민자당이 공략한게 주요했다는 일반적 평가다.

92대선의 특징

개표결과 유권민을 놀라게 한 것은 '지역감정의 벽'이었다. 지난해 3.24총선의 경우 골랐은 지역감정이 완화됐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게

결과가 나왔다. 그리고 선거전까지도 모든 언론매체는 "이번 대선을 계기로 지역감정의 벽을 허무는 시적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었다.

그러나 결과는 3.24총선보다 강화된 형태의 지역감정이 재현됐다. 광주에서 민주당의 압도적 득표와 부산, 경남, 경북의 민자당 득표가 단적인 예다. 강화된 지역감정으로 가장 피해가 컸던 후보는 국민당 정주영 후보였다.

금권선거의 선두를 달리며 지난해 총선에서도 '바람'을 일으켰던 국민당의 참패는 곧 지역주의의 희생양의 결과였다. 또다른 특징은 여전히 젊은층의 불참과 사표성이었다.

총선과 비교해 또다른 특징을 들 수 있는데, 그것은 집권당의 관권개입이 표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다라는 사실이며 언론매체의 '편들기'보도행태도 어느 선거보다 노골적으로 나타났다. 단적인 예가 선거중반을 지나며 나타난 국민당과 조선일보의 공방이었다.

선거투쟁 평가

87년 대선투쟁을 반성하며 최대한 단결을 강조한 선거투쟁이었다. 전국연합은 투표를 통해 선거·후보방침을 민주적으로 결정했으며 소속단체도 선거가 끝날 때까지 전국연합 후보방침을 존중했다.

시민단체도 '공경선거' '선거참여' 운동을 활발히 벌였으며 본교 공경선거감시단의 경우도 매일 거리선전전을 통해 선거참여를 시민들에게 호소했다.

백기환 후보진영의 경우 1만원에

◇언론감시단 활동 보고서

TV토론 촉구 선전전 불공정보도 항의방문 전개

지난 제14대 대통령선거를 20여일 앞둔 11월27일 발족된 '공정보도 실현을 위한 언론감시단'(언감단)은 제도언론의 왜곡·편파·불공정보도 개선을 촉구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국민회의 언론대책위원, 전국연합 언론대책본부, 선거보도감시연대회의, 언론지킴이 천주교도모임 등 4개단체가 중심이돼 구성된 언감단(단장=박상중·한국 기독교사회문제 연구원장)은 대선기간동안 극심해졌 언론의 불공정보도에 대한 대응으로 기능적인 활동을 전개할 한 시적인 조직의 위상을 갖고 출발했다.

주지하다시피 언론은 독자인 국민의 눈과 귀를 책임져야하는 막중한 책무를 지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이 공경하지 못한다면 국민의 눈과 귀는 어둠속을 헤매이게 마련이다. 이번 제14대 대선을 통해 표출된 제도언론의 왜곡·편파·불공정보도는 민자당이 대선승리를 하는데 한몫을 차지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언감단이 대선기간중 매일 모니터보고서를 통해 지적한 왜곡·편파·불공정보도 사례의 주된내용을 요약하면 민자당이 유리한 기사의 확대, 과장이며 불리한 기사는 축소, 누락, 은폐로 단정지을 수 있다. 제도언론의 이러한 불공정·편파·불공정보도는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적 냉소·패배주의를 유발시키기에 충분했다. 또한 권력을 지키기 위한 언론과의 유착은 지난 5공시절에 비해 더욱 교묘한 수단방법으로 표면화했다.

언감단이 대선기간중 KBS, MBC, SBS, 조선일보등 제도언론에 대한 TV토론 촉구, 항의전화, 항의방문을 전개한것은 언론의 공정보도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그만큼 컸기 때문이다. 즉 왜곡된 언론을 교정·정화하기 위한 국민의 강한 발걸음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언감단활동은 대선이 '언론선거'라는 큰 대의속에서 진행됐다고 할 수 있다. 대선정보의 90%이상을 TV, 신문등 언론을 통해 얻는 국민들의 현실을 감안할때, 대선기간의 언론은 어느때보다 각 정당, 후보간의 정책과 공약을 비교분석해 국민들의 올바른 판단기준을 제공할 막중한 의무가 있다. 하지만 제도언론은 이와같은 국민의 기대에 부응지 못했던 것이다.

언감단활동을 통해 제도언론이 특정세력의 편들기 보도를 서슴치 않고 나아가 특정후보의 홍보도구로 전락하는것을 비판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제도언론이 왜곡·편파·불공정보도를 일삼는 사례는 수없이 많다. 단적인 예로 조선일보의 경우 YS지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 사회계 비판의 대상이 되었던 것에서 알 수 있다.

언감단이 지난 12월12일 불공정 보도에 대한 항의방문은 이런 맥락에서 이뤄진 것이었다. KBS한국방송공사 또한 왜곡보도에 있어 예외는 아니었다. 언감단의 모니터보고서에 따르면 KBS는 '친민자, 반민주, 반국민'적인 보도양태를 보이면서 나아가 특정후보를 노골적으로 편파보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후보자들의 유세장 뒷쪽기식 보도에만 열을 올려 '국민의 방황'으로서 언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높다.

결론적으로 언감단활동은 대선에서 여실히 드러난 권위유착현상을 정면으로 비판했다는 점에서 근대적 보기도본 선례를 남겼다고 할 수 있다. 학생, 시민들로 구성된 언감단의 자발적인 언론감시활동에서 찾을 수 있는것은 언론이 공경해야만 공정한 선거, 사회번영이 가능하다는 사실에 대한 각성이 이번 대선 시기 언론감시활동의 교훈이라 할 수 있겠다.

<조인환 기자>

동막로

제14대 대통령 선거를 하두알든 지난 17일 오전 11시경 학교 후문앞에 난데없는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거 특정후보 일방지지 선전을 아니야?"

"나 민자당원인데 경찰서로 좀 가지."

"불법선거운동이면 신고를 하 시던지오 민자당원이면 다 잡아 갈수도 있는 겁니까?"

실랑이가 벌어지기 전 본교 학생 20여명은 후문앞에서 '범민주단일후보 추대'·'정권교체 우리가 할시다'등이 썩인 국민회의와 전대협 명의의 유인물을 시민들에게 배포하고 있었다.

선전전이 진행되고 있던 중 갑자기 후문으로 민자당원 20여명이 탄 봉고차 2대가 들어닥쳤다.

이후 민자당원은 민자당원증을 내보이며 선전전을 벌이던 사회과학대 학생 2명을 마구잡이로 끌고갔다.

끌어 소식을 들은 학생들이

누구나 경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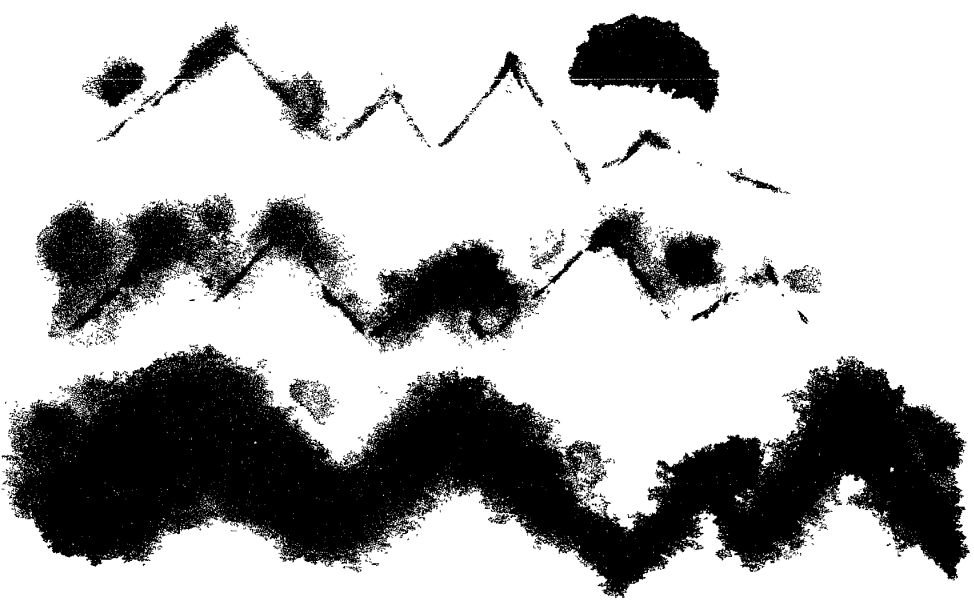
"어떻게 민자당원이 불·합법을 판단해 사람을 잡아갈 수 있느냐?"

"불법이면 경찰에 신고할 일이 지..."

지난 18일 대선이 집권여당인 민자당의 압승으로 끝나고 공경선거감시단이나 백기환 후보 학생선거운동본부라는 나름대로 합법적 선거공전속에서 열악한 조건을 안고 열심히 활동했던 학생들은 허탈함에 빠져 있을 것이다. 패배를 인정하면서도 아직도 공경선거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 것은 앞서 있었던 일처럼 민자당원이면 누구나 경찰이나 된 것처럼 학생운동원들의 인권을 무시했던 '관권의 기억'때문일 것이다.

<박수호 기자>

을 방학편 편지를 씁시다



전화, 팩스, PC통신 그러나 편지의 따뜻함을 아십니까?

싸늘한 겨울방학이 되면 캠퍼스의 잔디밭도 벤치도 과학생화실도 학교주변의 산술집도 싸늘해 집니다. 민족을 이야기하고 인생을 이야기하며 함께 울고 웃고 했던 상견동 석장동 마을도 삼삼해 짓는 소리만 메아리칩니다. 한해동안 강의에 지친 교수연구실의 책상엔 다음학기 강의준비를 위한

두터운 책들이 쌓이고 쌓인 책 뒤쪽으로 제자의 얼굴들이 스칩니다. 지도교수이면서 한번도 찾아뵈지 못한 선생님, 일년동안 학교발전을 위해 고생하신 총장님, 그리고 감옥에서 추위에 지친 우리들의 다양한 선루에게에 올겨를 추위 따뜻하게 데피고 남을 편장 한장 써봅시다.

교과위 새로 태어나야 한다

92년 체제와해—심각한 주체부족 나타나 사업의 연속성 위해 특별기구로의 자치권 확대 필요

88년 학원자주화투쟁의 최대성과물로 평가되는 중앙교과과정위원회(이하 교과위)의 건설.

이후 5년이 지난 지금 그들 자체 내의 평가처럼 최대위기에 직면해 있다.

지난 90, 91년동안 교과위가 강의평가제 및 교과과정 개편의 토대를 닦았다고 한다면 지난해 교과위는 전 사업을 근거로 하여 사업진전을 위해야 했으나 오히려 기존토대를 흔들려 하는 빈약한 활동을 보였다.

이에 이 글에서는 교과위의 현 위치를 재조명해보고 92년 사업평가와 앞으로의 전망을 제시하고자 한다.

< 편집자 >

실제 교과위가 구성된 것은 지난 89년으로 교수대표 3인이 교수회의에서 선출되고 이대표들이 학생대표 3인과 교과위를 구성했다.

이후 90, 91년은 사실상 교과위 내에 교수위원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학생대표와 학교측의 교무처장, 학술부장등과 사인에 따라 일시적 논의구조를 가지는 학생만의 독자적 형태로 진행되었다.

이에따라 교과위가 총학생회 회

칙에 공식적으로 명시되고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에 발언권을 가지게 됨으로써 사업의 제도적 보장을 받게 됐다.

이를 근거로 지난해 신규교수제 용과과정에서는 각 단과대 교과조직을 꾸려 학생참여를 서부신사와 공개강의를 통해 이뤄냈고 이의 필요성을 교수, 학생들에게 확산시켰다.

또한 지난 91년 10월에는 강의평가제를 11개 강좌에 대해 시범 실시했으며 이전에 사전교양작업 및 학생들의 의견수렴과 인식확대를 위한 설문조사 및 선전물을 제작하는 등 이후 강의질적향상을 위한 강의평가제 실시의 단초를 마련했다고 평가된다.

또한 교과위 초기단계로 가장 중요시되야 할 사업인 대중인식확대와 단위 교과주제를 세우기 위해 교과위 사업진행과 필요성을 알리는 자체 간행물 '학문과 사상'지를 발간해 내기도 했다.

그러나 문제는 교과위내에서 일할 주체의 부족으로 교수체용의 민주적제도, 강의평가제등의 각 사업들의 학내상황에 적합한 실천방안에 대한 연구가 부족했고 부서별 전

문화도 이뤄지지 못했다.

그럼에도 91년 교과위는 경성대나 아대등 단체조직의 초기단계를 뛰어넘어 민주적 교수체용에서의 학생참여를 보장해내는 것과 강의평가제의 당위성을 알려내는 등 대중인식기반 확대를 통해 앞으로의 교과위사업의 토대를 닦아놓았다는 점을 결과물로 남겼다.

이후 교과위 체계의 정착화라는 큰 과제를 안고 출발한 지난해 교과위는 출발 당시 단순히 교과과정이라는 영역만 아니라 본교의 모든 교육과정에 대한 제도개선을 책임져야 한다는 전제 아래 중앙교과과정 학생위원회에서 중앙교육과정학생회로 공식명칭을 변경한다.

그러나 정작 이름에 걸맞는 사업은 조직, 각사업들등 모든 부분에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지난해 교과위를 평가하며 가장 큰 문제로 들 수 있는 것은 조직의 구성이다.

정·부위원장과 정책국, 사무국 체계의 형태로 구성된 92년 교과위는 교과위가 전문성이 갖추어져야 하는 일임에도 주체들을 꾸리는 데 있어 구성원들의 단결과 사업배치가 허술했다.

이러한 와해된 조직구조로 인해 모든 사업에 지난해 사업을 이어받지 못한 채로 시작하는 형편이 되었다.

특히나 신규교수체용 등 사업을 통해 각 단위의 연대사업이 중요시 되어왔는데도 단위교양사업 및 중앙교과위와의 조직적 대응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기존 체계가 흔들리는 모습까지 보였다.

이상 살펴본 바와같이 지난해 교과위사업은 교과위기구의 존재여부조차 의문이 갈 정도였다.

이제 제25대 총학생회는 지금까지 전문적이어야 할 교과위 사업이 해마다 단절되었던 취학점에 대해 특별기구로서의 자치권을 확대해야 하며 지난해 사업을 올바르게 평가하고 각 단위의 교과위를 꾸리는 작업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또한 모든 사업의 단절을 막기 위한 주체의 확대재생산 구조를 갖추는데 주력해야 하며 강의평가제 실시 등 기타 교과사업의 필요성을 학우들에게 선전해내는 것부터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올겨울 교수추천 필독서

긴 겨울방학. 본교 교수가 추천한 한권의 책을 읽는 것으로도 넉넉히 보낼 수 있는 여유있는 시간이다.

각 분야 전공교수들의 추천도서를 추천글과 함께 간략히 소개한다. 책을 추천해주신 교수님들께 감사드리며 꼭 한권이라도 정독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 편집자 >

■소크라테스의 최후

<플라톤 지음, 박종현 옮김, 박영사>

'소크라테스의 변명' '크리톤' '파이돈' 등 세편의 대화체를 묶은 문고판. 이들 모두가 소크라테스의 죽음과 관련된 내용으로 소크라테스의 삶과 죽음, 그의 철학을 담고 있다.

추천의 말 "고전(1951년판)이면서도 동시에 지금에도 유효한 책. 민주주의의 완성을 위해 교육기반이 다져져야 하고, 교육의 기본원리를 전반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추천: 교육학과 한명희 교수>

■더더가도 사람생각하지요

<조광도 지음, 지리산>

91년 4월6일부터 27일까지 북한을 방문, 취재해 쓴 기행문. 한 사회주의국가 북한을 보기보다 한민족으로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생활을 담담하게 그리고 있다.

추천의 말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적 추세이기도 한 물질만능사상을 벗어나 인간다운 삶을 지향하고 사람중심의 사회로의 기향을 읽을 수 있다. 특히 신입생에게 삶의 좋은 길잡이가 되어 줄 것이다."

<추천: 사회학과 강경주 교수>

■카라마조프 씨네 형제들

<도스토예프스키 지음, 한위산>

■최인훈의 '광장'

<페스트>

<카프 지음, 범우사>

■유럽식 교육

<로렌카리 지음, 중앙일보 신세계문학전집>

■유재용의 '성역'

<추천: 국교과 한용환 교수>

■알고보면 재미있는 통계이야기

<한국통계학회 지음, 자유아카데미>

'어떻게'는 통계학의 여러가지 개념과 기법들을 실제 응용사례를 중심으로 쉽게 설명한 것이 이 책의 장점. 따라서 학생들에게는 설문조사 등 의사수렴작업에 커다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 또 여러 통계조사의 허와 실을 읽을 수 있는 안목까지 가질 수 있게 한다.

추천의 말 "예를 쉽게 들며 통계(학) 이해를 돕는 책이다. '통계란 무엇인가'하는 개념을 정립한다면 이를 응용한 여러 설문조사 작업도 보다 과학적으로 진행

대학신문의 위상과 역할'이었다. 이 발표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던 한 것은 이원화의 필요성에 대한 제기와 다변화시대에 걸맞는 다양한 소재선택의 필요성, 그리고 지역신문에 대한 긍정적 검토의 필요성 등을 역설했다. 학교-학생신문 이원화 주장이 학생신문으로 학교공식신문을 만들수 없다는 법률조항(정기간행물에 관한 법률 2장 9조 2항, 이런 행위를 했을시 1년 6개월의 징역을 살게 되어있다)을 상기하지 않더라도 허구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질문시 주간교수의 구상은 사실 다른데 있었다고 봐야 한다. 그의 의도를 면면히 알수 있는 유인물 '서강학보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를 통해 그가 밝히고 있는 것은 학보 위상의 전면적 개편, 곧 서구적 의미의 엘리트신문(학술적인 성격을 강화하고 정치색을 배제 한 중도적 지성지)로의 전환을 꾀하고자 했다고 볼 수 있다.

서강학보사 기자들은 주간교수의 독단적인 발행지연, 중단에 맞서 학생들과 함께 하는 대중적인 투쟁을 전개했다. 싸움이 지속되는 과정에 서 교수 학생간의 표현적인 마찰로

시릴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추천: 통계학과 염준근 교수>

■민주주의와 교육

<J·듀이 지음, 이흥우 옮김, 교육과학사>

민주사회에 내포된 여러 관념들을 밝혀내어 이를 설명하고, 나아가 교육사업의 제문제에 이 관념들을 적용해 보려고 노력한 책. 총 26장으로 구성. 민주주의와 교육의 관계를 밝히고 있다.

추천의 말 "고전(1951년판)이면서도 동시에 지금에도 유효한 책. 민주주의의 완성을 위해 교육기반이 다져져야 하고, 교육의 기본원리를 전반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추천: 교육학과 한명희 교수>

■더더가도 사람생각하지요

<조광도 지음, 지리산>

91년 4월6일부터 27일까지 북한을 방문, 취재해 쓴 기행문. 한 사회주의국가 북한을 보기보다 한민족으로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생활을 담담하게 그리고 있다.

추천의 말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적 추세이기도 한 물질만능사상을 벗어나 인간다운 삶을 지향하고 사람중심의 사회로의 기향을 읽을 수 있다. 특히 신입생에게 삶의 좋은 길잡이가 되어 줄 것이다."

<추천: 사회학과 강경주 교수>

■카라마조프 씨네 형제들

<도스토예프스키 지음, 한위산>

■최인훈의 '광장'

<페스트>

<카프 지음, 범우사>

■유럽식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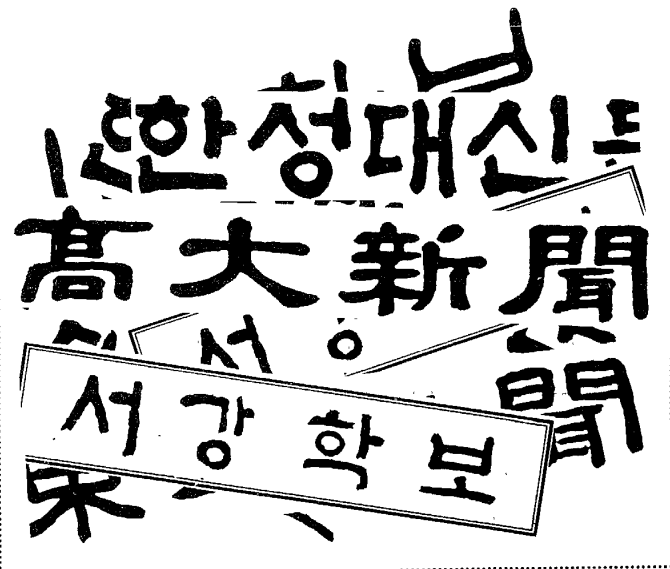
<로렌카리 지음, 중앙일보 신세계문학전집>

■유재용의 '성역'

<추천: 국교과 한용환 교수>

92 대학신문 탄압사례와 93전망

체제개편 논쟁 '본격화' 주간-기자 논의속에 방향 모색해야



고대신문 공청회에서

고려대학교 4·1871년과 안에 공청회 아닌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었다.

1백명도 채 안되는 적은 수의 학생들, 이에 걸맞지 않게 커다란 원수막이 분위기를 더욱 공백하게 만든다.

'고대신문 정상화 촉구'를 위한 고대인 공청회

바로 엊그제 1천5백여명의 학생

들이 모인 자리에서 "고대신문 사

수'의 합성이 넘쳐 나던때와는 대조적으로 대중의 무관심속에 진행된 이날 공청회는 고대신문 사수싸움의 더 본질적인 목적이었던 대학신문의 올바른 위상과 역할 규명을 위한 자리였지만 적은 수의 학생들이 참여함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다.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이번 싸움은 별다른 전쟁이었습니다. 학생처장인 지조차도 끼어 들기 힘든 별천지의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대 학생처장은 고대신문 편집권 투쟁을 이렇게 말했다. 주간교수는 학생기자든 공회 허공에 떠도는 공허한 이론에 휩싸여 서로 자신의 본분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주간교수는 막스베버의 가치중립에 입각하여 불변무양한 서구적 저널리즘을 대학신문에 끼어 맞추려고 하였고 학생기자들은 학생기자들대로 탐사의 시각만을 대학신문에 강요하려 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그러한다. 전 지면에 걸쳐 새로운 진보이론을 소개하는데 전했었던 87, 88년과는 달리 89년 매체혁신이 기자들 내부에서 제기되면서 지면에서부터 조직, 주체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신문사의 혁신을 추구하기 시작했고 독자대중들과 함께 살아 숨쉬는 신문으로 재탄생하고자 하는 몸부림을 하기에 이르렀었다. 오히려 지금의 문제는 이론적인 좌편향이나 기자들의 밀폐된 분위기에서 비롯되었다기보다는 89년부터 지속된 교육당국과 학교당국의 탄압으로 인해 외부적인

어려움을 겪은 데다 내부적으로 대학신문의 올바른 언론관의 정립에 실패함으로써 많은 수의 기자들이 이탈하게 되고 이러한 기자들의 내부적인 혼란은 신문제작에도 어려움을 겪는 등 내외적인 혼란기에 직면한 때문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것은 지면의 변화를 꾀했던 최근과 와서 대학신문의 대중성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것과 맞물려 있다.

92년 한해동안 대학신문은 수난을 당했다. 고대신문의 발행중단에 서부터 비롯된 '대학신문 체제개편 논쟁'은 학교당국과 대학신문 기자간의 대립구조를 낳으며 연세대, 세종대, 덕성여대, 한양대, 국제대 등으로 이어졌고 한학기 내내 신문이 발행되지 않는 사태도 벌어지게 된다.

"대학신문 체제개편 논쟁"은 대학신문을 기존의 학생편집권 체제로 운영해야 한다는 학생기자들의 의견과 학생기자들의 역할을 아르바이트 수준으로 낮추고 신방과 대학원생이나 기성언론의 전문언론인으로

로 편집진을 개편하자는 일부 주간교수들간의 논쟁의 성격에 뚜렷고 실연된 채로 있는 주간교수들에 의해 신문 발행이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양상으로 진행되어왔다.

서강학보 투쟁이 남긴 것

그러나 대학신문의 위기의식이 수면위로 표출된 것은 서강대였다.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는 백일의 상황이 등장한 것이다. 기간의 '체제개편'차원이 아닌 학생신문 아니면 학교신문이라는 이분법이 89년에 처음 등장하여 매체혁신을 처음으로 제기했던 서강학보사에서 표면화되었던 것이다.

"일부 일간지에 보도된 서강대 지역신문 창간의 의미는 현존하는 서강학보사를 폐지하겠다는 주간교수의 의도였다."

공교롭게도 서강대 지역신문 전면화와 거의 같은 시기에 주간교수들의 회합체인 '전국주간교수협의회' 회개세미나가 열렸다. 이 세미나의 주제발표 내용은 '다변화 시대의

병무 민원 음성자동안내

병무 민원 음성자동안내

병무 민원 음성자동안내

병무 민원 음성자동안내

병무 민원 음성자동안내

병무 민원 음성자동안내

병무 민원 음성자동안내

병무 민원 음성자동안내

병무 민원 음성자동안내

병무 민원 음성자동안내

병무 민원 음성자동안내

병무 민원 음성자동안내

병무 민원 음성자동안내

병무 민원 음성자동안내

병무 민원 음성자동안내

병무 민원 음성자동안내

병무 민원 음성자동안내

병무 민원 음성자동안내

병무 민원 음성자동안내

병무 민원 음성자동안내

병무 민원 음성자동안내

병무 민원 음성자동안내

병무 민원 음성자동안내

병무 민원 음성자동안내

병무 민원 음성자동안내

병무 민원 음성자동안내

병무 민원 음성자동안내

병무 민원 음성자동안내

병무 민원 음성자동안내

병무 민원 음성자동안내

병무 민원 음성자동안내

병무 민원 음성자동안내

병무 민원 음성자동안내

병무 민원 음성자동안내

병무 민원 음성자동안내

병무 민원 음성자동안내

병무 민원 음성자동안내

도서관 출입자 관리 변경

먼저 도서 대출 반납 전산화의 선행 조치인 도서관 재배치와 도서 바코드 라벨 부착 기간중 많은 불편을 감수 해준 학생여러분께 감사하며 '93학년도부터 시행되는 바코드에 의한 도서관 출입자관리 시스템 및 도서 대출 반납 전산화에 따른 도서관 이용을 안내하니 학생 여러분의 많은 협조 바랍니다.

다 음

1. 도서관 출입자 관리

가. '93신입생 및 재학생에게 바코드가 인쇄된 학생증을 발급할 예정임.

나. 바코드가 인쇄된 학생증이 없는 경우 도서관 출입이 불가능함.

다. 만약 학생증을 분실한 경우 장학과에서 재발급 받아야함.

2. 도서 대출 반납

가. 학생증에 인쇄된 바코드를 사용하며 도서차람증은 사용하지 않음.

나. 전산화가 본격 가동될 때('93. 5. 1)까지는 도서차람증 사용을 병행할 예정임.

중앙도서관장

동해 낙산학사 이용

동해 겨울바다를 낙산에서

강원도 양양군 소재 본교 동해 낙산학사 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 합니다.

- 이용기간 : 년중 항시 이용
- 사용료
가) 내부 이용자 (교직원 및 재학생)
학생 1인 1박 ₩1,000 (난방비 : 1실 ₩3,000)
교직원 1실 1박 ₩7,000 (난방비 : 1실 ₩2,000)
나) 외부 이용자(동문 및 외부인) : 내부 이용자의 2배
- 시설규모

구분	숙소	식당	회의실	비고
규모	10실	14실	1	1
난방실수	3실	7실		심야전기난방
수용능력	120-200명	70명		200명

- 사용 신청접수 및 문의 :
서울= 관재과 후생복지계 (교내 : 3083, 3084)
경주= 학 생 : 학생과(770-2047·8)
교직원 : 관재과(770-2083)
※외부 이용자의 신청접수 및 문의는 서울캠퍼스 관재과(260-3083)로 연락바랍니다.

관 리 처 장

병무 민원 음성자동안내

병무 민원 음성자동안내

병무 민원 음성자동안내

병무 민원 음성자동안내

병무 민원 음성자동안내

병무 민원 음성자동안내

병무 민원 음성자동안내

병무 민원 음성자동안내

병무 민원 음성자동안내

병무 민원 음성자동안내

병무 민원 음성자동안내

병무 민원 음성자동안내

병무 민원 음성자동안내

병무 민원 음성자동안내

병무 민원 음성자동안내

병무 민원 음성자동안내

병무 민원 음성자동안내

병무 민원 음성자동안내

병무 민원 음성자동안내

병무 민원 음성자동안내

병무 민원 음성자동안내

병무 민원 음성자동안내

병무 민원 음성자동안내

병무 민원 음성자동안내

병무 민원 음성자동안내

병무 민원 음성자동안내

병무 민원 음성자동안내

병무 민원 음성자동안내

병무 민원 음성자동안내

병무 민원 음성자동안내

병무 민원 음성자동안내

병무 민원 음성자동안내

병무 민원 음성자동안내

병무 민원 음성자동안내

병무 민원 음성자동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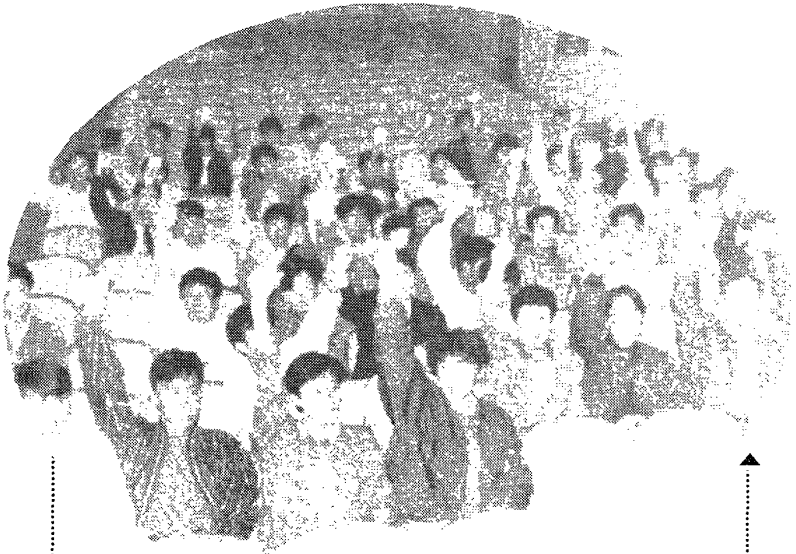
①경부고속전철 경주캠 통과

6공말 7대의혹사업의 하나인 경부고속전철이 당초 기본 노선을 무시하고 본교 경주캠퍼스를 관통하는 비교노선으로 통과하게 됨에 따라 경주캠퍼스 학생, 교직원, 동문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강한 반발을 샀다.



⑥중앙대 침탈

92범민족대회 개최 예정화되었던 중앙대를 경찰이 침탈 대회를 무산시키려 했으나 장소를 서울대로 옮겨 4일간의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재야와 학생운동진영에 대한 정권의 유례없는 대공세속에서도 중앙대내에서 대회 폐막식을 치렀다.



②총학선거 3월 연기파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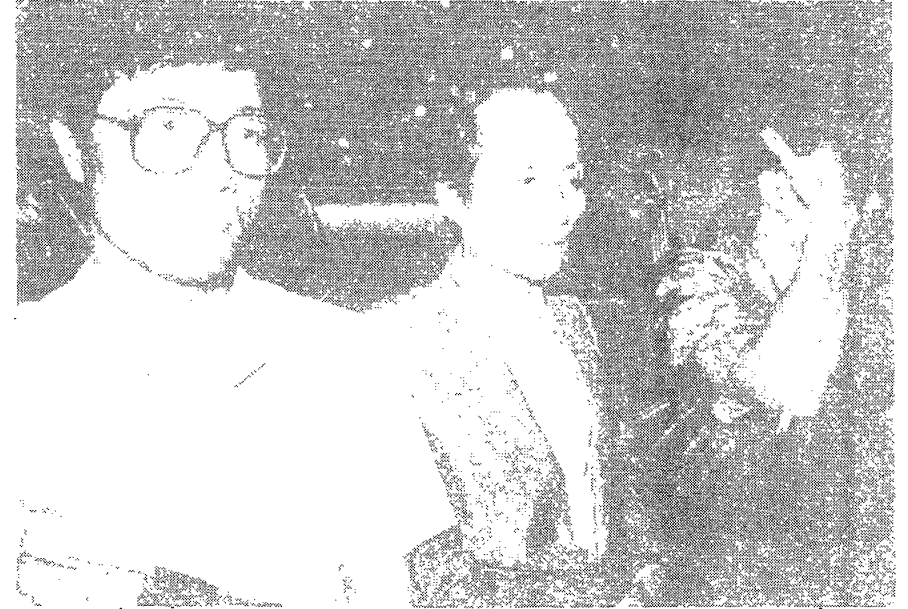
학내 여론 개입없이 제25대 중앙선관위가 학생회칙을 자의적으로 해석 총학 선거를 3월로 연기시켰다. 대통령선거에 입해야 한다는 당위적 대의가 있었지만 학내 일반학생들의 의사에 반하는 무리수였다.

사진으로 본 1992

92년 역시 4천만 민중이 염원하던 정권교체, 민주정부수립의 이상은 좌절되고 말았다.

오늘 정권은 보다 공고한 법보수의 벽을 치고 형식적인 승리에 호풍해한다. 하지만 4천만민중이 주권자로서 진정한 승리를 위해 보다 양심적 애국심인 학생, 노동자가 많았으면 오늘을 더고 일어서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모르고 있다. 지난 한해 학내, 외를 뒤흔든 10대 사건을 통해 희망의 93년을 험하게 열어 젖힐수 있길 빈다.

<편집자>



⑦ 간첩단사건 파문

안기부는 김남중·장기표씨등 남한조선노동당조직관련 인사들을 간첩혐의로 대량구속시켰다.

이를 계기로 정권은 재야에 대한 흠집내기 작업에 열을 올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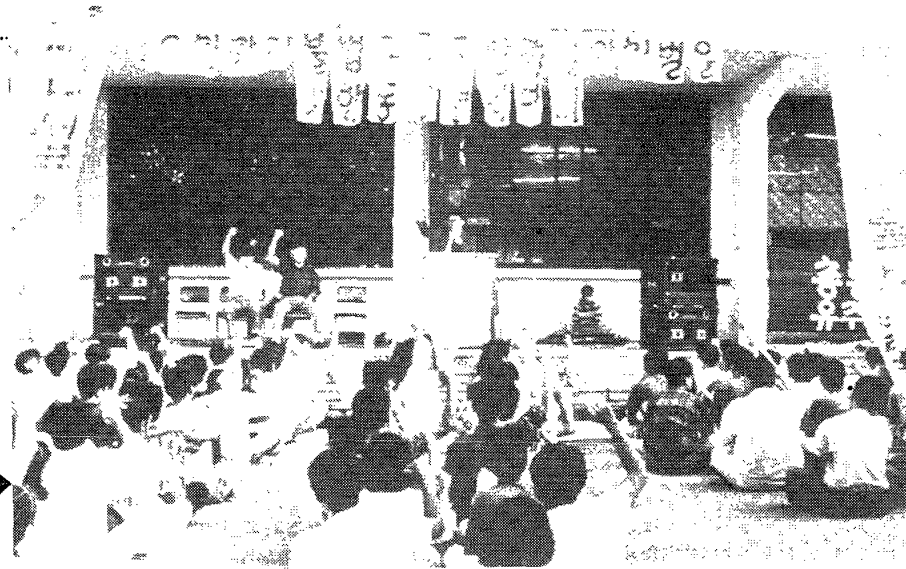
③ 동국학술문화관 건립

올 93년에 착공. 개교 90주년이 되는 오는 96년까지 총 1백 50억원을 들여 연건평 5천3백평에 지상5층 지하2층 규모로 지어진다. 화술·문화·연구 3개동으로 배치되며 사실상 서울캠퍼스에서 이어지는 마지막 건물일 듯하다.



⑧ 공정방송 실현투쟁

지난해 9월2일부터 공정방송실현을 위한 MBC노조의 파업돌입으로 대선을 앞둔 방송구조개편이라는 정부의 의도에 찬물을 끼얹었다.

[illegible]

④충동입회비 논란

2학기 등록금과 교재와 함께 88년 동계방학 중도첫회 일일부가 부활 발돋웠다. 7개 단과대를 주축으로 중앙대생회가 꾸려져, 내부화 일일부가 회수 컷이며 나머지 일일부가 외부정착화가 무늬화되고 있어 이리만큼 단박 됐다.



⑨ 끌려가는 양심

정언의 권과 관권 부정은 그것을 폭로한 양심선언이
 화해의 단꿈이 될 수 없었다. 이 지문 중언부를 비롯한
 학정수난수난의 양심선언이 바로 시대의 양심이
 깨지지 않던 양심에 응징했다.



⑤ 역교과 북한과 편지교류

본교 최초로 역사교육과와 북한의 김종태 사범대학이 독일의 전민턴 해외연락본부를 통해 편지교류를 성사시켰다. 내용은 주로 양쪽 대학생들의 생활, 교과과정, 진로문제였다.



⑩ 비리정권 6공

계속되는 경제 불황속에서도 정부의 특혜사업만큼은 활기를 띠는 '호경기'를 구가, 정치자금마련을 위한 정권의 부도덕함이 폭로되어 국민들을 실망시켰으나 검찰의 명확한 수사는 한번도 없었다.



93년 동국중흥을 위한 힘찬도약의 해 돼야

▲92년 한해 동안 교정 곳곳을 누비며 그간 동국인의 눈과 귀가 되어 주신 기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92년 한해 학내 주요 쟁점들을 살펴보면 먼저 지리한 등록금투쟁이 계속된 1학기와는 달리 2학기 개강과 함께 총동창회임회비 부활 논란 및 총학생회 선거 3월 연기 파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동국학술문화관 건립에 따른 미술학과 임시 공간 확보요구로 학교당국과의 마찰이 시작되었으며, 경부고속철도의 경주캠퍼스 통과 저지를 놓고 건설공단측과 10만 동국인, 경주시민의 완강한 반대운동이 있었습니다.

한편, 학외로는 3·24총선, 12·18대통령선거를 통해 대중 정치의식을 높이는 한림공간속의 투쟁들을 전개해 나갔던 한해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한해를 되돌아 보고 다가오는 93년도에 재단혁신을 통한 '학원지주화'와 완성, 민주대개혁 실천투쟁으로의 매진을 위해 지난 92년 한해를 하나 하나 평가해 나갔으면 합니다.

1학기 등록금투쟁

■ 학교당국의 등록금 고지서 일방발부포 시작된 3개월간의 지리한 싸움이 나타낸 결과는 '이런 식의 등록금투쟁은 반드시 진다'라는 전례적인 예였다고들 합니다. 방충동 안이루면 준비과정 없이 고지서 일방발부라는 극단적 사안이 벌어졌을 때에야 겨우 동부수위위원회를 꾸리는 등 구태의연한 모습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 92년 동부에서 특기할 만한 것은 본교가 처한 학원지주화사업의 특수한 여건이 재단의 문제로, 나아가 조계종단의 문제로 확대되는 것과 때를 같이해 전대협은 전국 사립대학의 재원확충요구를 국가적 문제로 확대시킨 것입니다.

■ 이후 이러한 움직임들이 얼마나 강도높게 추진될지에 대한 미지수지만 동부의 이론적 범위 확대라는 긍정적 측면은 높이 평가되어야 합니다.

■ 어쨌든 3·24총선과 맞물린 등록금투쟁의 시기는 싸움을 끌고 나간 지도부의 가장 큰 결점들이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경주캠퍼스의 경우 총선에 대한 별다른 관심이 학생들의 투쟁의지를 쇠고수준까지 끌어 올려놓았는데 정작 서울캠퍼스 학생들의 반응은 시큰둥해 경주캠퍼스의 열의를 급속도로 냉각시켜 버렸습니다.

■ 경주와 서울캠퍼스 학생회간의 상호 유기적 결합없이 터진 등록금투쟁은 학교측의 요구를 그대로 반영 '환불없는 3%인하'라는 형식적 승리를 얻는 실패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올해 서울·경주의 공조적 동부선거가 절실하리라 봅니다.



재단혁신 통한 학내 비민주적 요소 척결 시급

동국학술문화관 건립에 온 동국인 힘 모으는 93년 기대

총동창회 임회비 논란

■ 방충동이던 지난 8월, 88년 학자투쟁 당시 총동창회의 비민주적 행태들에 분노한 학생들이 비상 학생총회를 열어 동결시킨 총동창회 임회비가 부활돼 2학기 등록금과 함께 고지되자 이에 반발한 학생회 몇몇단위를 중심으로 중앙대칙위가 꾸려졌습니다.

■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총동창회비 부활 저지를 위한 학생들의 단호한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시종 총학생회가 소극적 자세로 일관해 총학이 어느 정도 복원한 상태에서 임회비가 고지되게 아나하는 의문을 낳게 했습니다.

■ 또한 그 이전부터 총학과 총동창회, 민주동맹회의 회합이 있었다는 소문이 무성했으며 특히 임회비 고지가 총학생회장의 명의로 발부되는 학생회비 고지서에 기재된 데 대한 총학측의 명확한 해명이 없어 이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었습니다.

■ 어쨌든 일부에선 '학교측이 총동에 대한 배려 차원으로 임회비 부활을 계획하다 오히려 학생들의 반발만 샀다'라는 평가와 함께 뒤에 환불소동으로 2중임부를 보게된 본관직원들의 불만과 학생회비 납부유저조로 재정압박에 시달린 단위 학생회 주체들 불만을 동시에 샀지요.

한편으로는 총동창회, 학생, 학교등 학내 제 주체들에게 진정한 동국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묻는 물음과 함께 제 주체 상호간의 인식정도가 얼마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느냐는 사실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총학 선거, 3월 연기 파문

■ 선거가 갖는 여러가지 의미 중에서 그해 학생회에 대한 평가와 보다 나은 공약, 정책을 내놓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을 던지게 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학생들은 자신을 객관화·대상화시키려는 그 어떠한 의도도 단호히 배격하며 강력한 비판을 가해 온다는 사실입니다.

경부고속철도 경주캠퍼스 통과

■ 경주캠퍼스한외대와 체육관을 관통하는 경부고속철도의 비교노선이 공단측의 일방적 통보로 확정되자 이에 10만 전동국인 차원의 반대 움직임이 확산되었습니다.

■ 예, 6공방 정치자금을 둘러싼 의혹사건중의 하나인 고속철도 철로 인해 해당지역 경주시민, 동대 경주캠퍼스 사람 모두를 놀라게 했지요.

■ 한데 경주캠퍼스와 저지투쟁과 정에서 경주캠퍼스 학생, 교수, 직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에도 불구하고 서울캠퍼스에서는 그다지 별호응이 없어, 경주캠퍼스의 준원기반을 위협하는 이런 사안에 대해 서울경주학생들간의 정서가 얼마나 이질화되었나를 알게 해주었습니다.

미술학과 공간확보 요구

■ 취재과정에서 관계 직원들의 한결같은 말이 '학교발전을 위한 일인데 그정도 어려움을 참고 견디어 주는데 학생들의 미덕 아니냐'라는 식의 안일하고 감정적인 자세에 경부고속철도 경주캠퍼스 통과

◇참석자

이병민 편집장
조인환 취재부장
이경애 문화부장
조용수 취재부 차장
박수로 문화부 차장
이석중 기자 백찬주 기자
조호애 기자 김태성 기자
김대규 기자 공경옥 기자
강관식 기자 김선영 기자
차인선 기자 이재환 기자
변재석 기자 전현철 기자

◇일시: 92년 12월15일 오후2시

◇장소: 본사 회의실

란 것이 그것이었죠.

■ 그보다 근본적으로 연초부터 문제 제기했던 총학운영위가 거듭되는 파행으로 사실상 학내에 존재하는 정파간 감정대립의 표출장이 되었다는 데 그 문제의 심각성이 두드러지죠.

■ 경주총학생회는 아무런 지역적 특수성을 강조한다고 해도 1학기 2학기간의 사업 편차가 너무 심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2학기엔 계획성 없는 학생회비 지출로 총무부장이 증발하는 웃지 못할 사태가 발생했는데 일반학생들의 학생회 불신정서를 부추킨다는 이유에선지 서로서로 눈감아 주는 안중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이후 10대, 11, 12대들의 총학생회도 이러한 오류를 되풀이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것 같아 씁쓸하군요.

■ 총대의원회를 선거연기 파문으로 극단적인 학생회 대립을 불러온 원인제공자가 되는 불명예를 안고 이후 학생회칙의 자의적 해석사태라는 안중은 선례를 남긴 한해였습니다.

■ 사업에 있어선 실제적으로 학생회감사부분이 너무 형식적이어서 학생회 견제장치가라는 의결기구로서의 위상 재점점이 필요했다고 봅니다.

■ 교수회가 학교 정관상에 그 위상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한 계속해서 매 사안마다 학교측 입장을 그대로 좇아간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다만 신입이 승용교수를 비롯한 신입 서울·경주교수회 임원진의 성향을 비춰볼때 총장의 임기가 만년 밖에 남지않은 93년 한해는 교수회와 학교측의 만만치 않은 일석이 조재하리라 추측됩니다.

■ 92년 임금협상과정에서 정부와 학교측의 총대임금제수용이라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인 직원노조가 신입 장원위원장의 제5대 노조 출범을 계기로 전국대학노련과 적극결합, 노조의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해나가고 있습니다. 올 93년 임투를 전대노련차원과 공동으로 대처, 성공적결과를 내온다면 노조의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겠죠.

■ 학원지주화투쟁(이하 학자투)을 우선 평가한다면 이전에 제기된 재단혁신투쟁으로서의 학자투가 아니라 그때그때 현상적 당면사안들을 해결하는것만에도 급급한 한해였습니다.

■ 학자투의 3대 요건인·불적, 인적, 사상적 토대없이 일반 학생들의 열의만으로는 조직적이고 내용성있는 학내 민주화요구를 수용할 수 없었습니다.

■ 경주역시 본교가 아닌 제2캠퍼스로서의 자치권 확보 문제에 대한 이론적 연구작업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작년 교수회가 형식적인 자치권 확보부문에 부응장전선제를 거론했지만 실제

는 대의 정치투쟁에 매몰되어버

학칙엔 부총장이 총장지명으로 보직되는 것으로 되어있어 실질적인 근거가 미약한 상태입니다. 지금과 같은 서울·경주간의 이질감, 반목이 계속된다면 경주캠퍼스 제주체들의 심각한 문제제기를 받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외형적인 하나의 학교보다 1학교 2체제의 정책인안이 적극 모색되어야 합니다.

■ 교과과정을 중심으로 작년 한해를 평가한다면 사업내용이 전부 하더라는 혹평을 내릴수 있습니다. 1학기초 부역학과의 교수채용과 2학기 결정행정학과 교수 채용과정에서의 불의를, 중앙교과위가 올바른 지도내용을 갖고 이렇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지요. 이는 중앙교과위의 일할 주제도 모자라는데 작년학의 인식부족으로 기존 체제를 마저 무너져 버린 데서 연유한다고 봅니다.

■ 학생복지위원회가 기획하고 있는 학내복지매장설치가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학생들이 실질적 혜택을 볼수 있기 때문이었지요. 다만 학복위가 아직까지 각 단대별위원회를 꾸리지 못하고 있어 위원장을 비롯한 임원선출의 폐쇄성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93년 전망

■ 마지막으로 학원지주화를 중심으로한 93년 학내전망을 해봤으면 합니다.

■ 흔하디흔 88년 학자투를 말할 때 학생들은 '1백30년간의 신화 창조'라고 하고 교수, 직원들은 '생각조차 하기 싫은 기억'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학자투에 대한 학생들과 교직원들간의 시각차를 반증한다고 봅니다. 본교 역시 사립재단이 갖는 고질적인 불적, 인적 재원 부족을 겪고 있지만 조계종단이라는 거대종단을 그 실체로 하는 동국학원이 그만큼 사정이 어긋나기를 생각해 보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에서는 사립 학교법제정이후로 재단이 학교에 대한 재원의 투자와 단절을 교묘히 조절함으로써 그들의 이해에 맞게 학교를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 올해 제25대 총학의 재단혁신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음을 감안할 때, 93년은 학원지주화 사업은 그간 학내에 산적한 비민주적 요소를 척결하고 동국의 발전과 21세기를 준비하는 대안으로서의 올바른 위상을 세우기위한 한 걸음이 그 어느때 보다 실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올해도 학내 각주체들의 단합된 의지를 모아 학생, 교수, 직원, 동문과 함께 뛰는 93년이 되도록 합시다.

지난 한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기록·정리=조용수 기자>



이사도라 던컨
(Duncan Isadora 1878~1927)
미국의 무용가, 고전발레의 재앙을 일으키고 내면의 표현을 추구하여 고전발레의 외형과 맹목적 자부심을 경건에 찬 춤을 창조. 현대무용의 선구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사도라 던컨, 그녀는 스무살에 맨발로 춤을 추었다



자유혼의 몸짓으로 그려낸 사람과 예술— 그녀의 스무살은 뜨겁고도 아름다웠습니다.

자유와 영감의 몸짓을 사랑했던 이사도라 던컨—

그녀는 고전발레의 규격화된 기교를 거부하며 맨발의 춤으로 현대무용의 새 지평을 열었습니다.

생의 기쁨, 사랑의 슬픔, 때로는 절망까지도 뜨거운 영혼의 몸짓으로 그려냈던 맨발의 이사도라—

무대에서의 그 열정처럼, 또한 사랑의 아름다움에도 몰두할 줄 알았던 여인이기도 합니다.

가을에서, 가끔씩 사색겨려지는 스무살의 짧은 날—

그 뜨겁고도 아름다웠던 그녀의 삶을 담아보는 것은 어떤가요?

아름다움이 있는 대학생들— 아모레 순정진과 함께 하세요.

순정진은 피부이질, 피부자극으로부터 피부보호기능을 향상시킨 진일보된 민감성 피부진정 제지성화장품입니다.

• 전국28개 종합병원 피부과와 공동개발



대평양화학

폐 항략적인 식민 문화의 탈피를
하여 깨끗한 동국이 전력질주하
는 시기로 만들겠습니다. 내내 건강
하십시오.

- 내사랑 제7대 동아리 연합회

새웃

'신문사', 그 생소하지만은 않은 이름에 어릴 적 기대감으로 내 생활을 내린 지 어느덧 6개월, 수습이라는 보호의 벽을 허물고 이제는 당당하게 주인공으로 나서야 한다.

지난 6개월, 너무나도 새로운 이름의 단 사건들이 내 앞을 지나갔다. 기적해야 일년에



이 석 중 기자

한두장 써볼까 말까한 원고지를 하루에도 수십장씩 채워보기도 하고, 어디 둘러가서 가족 사진이나 찍어왔던 사진도 이제 일상이 되어버렸다.

어디 그쳤겠는가. 거의 매일 자정이 지난시간에야 귀가, 또 다음날 아침 늦게 일어나고 아침 철만 거뜬히 한두번이 아니다.

이런 낯선 생활들이 점차 일상생활로 익숙해지면서 또다른 고민에도 빠졌다. 그 고민들은 무엇이었을까. 지금 와 생각해보면 유익하기 짝이없는 수준의 고민이었다. 단지 내 자신만을 위한 고민이 아니었다 싶다.

단지 지금 이 순간이 수습이라는 거주장소라는 개념을 벗는 순간이어서만은 아니다. 수습장지를 때는 지금에서야 그간 얼마나 부족한 점이 많았는가를 새삼스럽게 떠올릴 수 있어 서이다.

그렇다. 바로 지금이다. 지금이 순간만이 나에게 최선이란 게 무엇인가를 보여줄 기회인 것이다.

난 믿고있다. 나의 내일을 앞으로 2년은 내게 수많은 시련을 줄 지 모른다. 그러나 그때

마다 난 다짐하리라. '최선이란 무엇인가'의 해답을 찾고 말겠다.

그저 단순히 최선의 의미만을 인식하는게 아닌 몸으로 최선을 느껴야 한다. 책임지고 싶다. 아니 책임져야만 한다. 2년의 동아청년독자들, 아니 1백만의 청년학도들.

'수습'이라는 내자신을

감싸준 보호의 옷을 벗고

주인님의 새웃을 찾아

입어야 한다

펜과 카메라를 나의 최고의 무기로 삼아 1백만을 책임지자.

주인되고 싶다. 아니 주인돼야 한다. 그저 나에게 주어진 길을 가는것이 아닌 내가 길을 만들어 나가는 '동대신문'의 주인이 되고 싶다. 당당히 주인의 모습으로 다시 서리라.

답이라고 싶다. 아니 답이 있어야 한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랑을 알아가듯이 1백만 청년학도의 삶을 알아가야 한다. 그저 백만학도를 사랑하기에.

이제 당당히 일어서 주인공으로 걸음을 찾아야만 한다. 아무리 어렵고 험난한 길이라 해도 찾아야 한다. '수습'이라는 내자신을 감싸준 보호의 옷을 벗어 던지고 여타에 있어 주인님의 새웃을 찾아 입어야 한다.

이제 일품으로 세상에 던져졌다. 새웃을 입자.

누구도 입어보지 못한 그 누구도 입혀줄 수 없는 새웃을...

<불교대 불교학과>

친구들에게 그렇게 뜨겁고

망치소리

항들었던 것은 나의 다리가 아니었다. 무언가 망쳐 토해내고 싶었던 말이다.

그러나 게으른 속에는 1백80일이라는 슬픈 방황의 날들 속에서도 청일거림에서 희망을 향한 몸부림으로 미처 치닫지 못한 채 지금 겨울에 멈춰있다. 스스로를 바라본다.



백 찬 주 기자

정말 설세없이 달려 왔는가? 노동자의 아픔을 함께하는 활동가도 아닌 깨어있는 청년학도도 아닌 이 사회의 소모품에 불과한 뎡인가.

가장 객관적이고 충실적이어서야 함을 강요당하면서 그것을 이용해 오진 않았을까. 부끄러움을 뵈었다.

한정된 대학생활에 걸여지기를 싫어 두드린 낡은 신문사 문은 내 마음속에서 쉽게 단절되지 못했다. 단지 새로운 수단이 기에는 경주신문사의 상황은 너무 어려웠고 그것을 외면하려 했을뿐 이미 깊이 빠져있었다.

이기가 어려웠던 여름방학과 첫 개강호에서 반겨준 사라져 버린 기사들. 오보에도 불구하고 잠잠했던 학우들은 벅찬 나의 꿈을 공허한 메아리로 떨게했다.

친구들에게 그렇게 뜨겁고

화려했던 캠퍼스가 우리에게 겹겹이 녹은 캠퍼스로 남아 있었지만 내가 선택한 길이 단지 자기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면 그렇게 나의 자리를 정당화시키지 말자.

이제 이러한 혼란을 정리하고 둔탁한 탁상공론에서 빠져 나와 행동해야 할 때가 된 것이다.

잃어버린 학우대중들을 찾기 위해 '나'를 고치고 '신문'을 고쳐 나가자. 소모적 외양만 고치고 격이지만 반드시 필요한 소라비 외양간은 다시 고쳐야 하는 것이다. 죽어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깨어있는 젊은이로 발목을 시리도록 캠퍼스를 밟아보자.

이제 나는 스스로

나의 어깨에 책임감이라는

무거운 섧덩이를

쏘아올렸다

이러한 나의 다짐들이 실천으로 옮겨지지 못하고 나태와 게으름의 후속에서 허약해져 있다면 그것은 학우들을 기만하는 행위일 것이다.

이제 나는 스스로 나의 어깨에 책임감이라는 무거운 쇠덩이를 쏘아올렸다. 남은것은 한 조각 하늘을 움켜쥐고 메아리 쉼을 분에 넘친 기쁨을 어찌할지 모르는 한 마리 정충처럼 다시 질주하는 것 뿐.

꼭꼭했던 여름이 끝났고 지금 겨울이다.

또 한번 우리는 스스로에게 버려질 것인가.

귀가되어 보라.

외양간을 고치고 농부의 힘찬 망치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인문대 국문과>

라서 나의 새해는 혼란함과 진실한 우정으로 가득할 것이다.

송 봉 근

<사법대 국어교육과>

실천하는 지성

조금은 낯설고 조금은 두려운 마음으로 시작했던 신문사. 지금까지 그 어떤 글보다도 부담스러웠던 것은 선전일꾼으로서 철저하지 못했던 시간들이었기 때문일거라.

삶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보다 더 많은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현실을 외면한 채 대학의 낭만을 갈구하며 방황하는 지성으로 남길 거부하면서 실천하는 지성이 되고 싶다.

내 스무살 젊은 한 때가 모순과 오욕으로 점철된 이 땅을 갈아엎고 맑은 공기, 따스한 햇빛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새로운 땅으로 설 수 있게 하는 작은 혁명이 되었을 좋겠다.

전세값을 마련하지 못해 목



김 선 영 기자

숨을 쉰 사람이 있고, 짐을 빼앗겨 울고있는 철거촌의 아이가 있는. 못가진자는 가진자를 영원히 따라잡지 못하는, 단 한사람 가진자를 위해 수천 수백의 피를 강요하는 이 땅에 진정한 언론 전사로서 뛰어들지 않는 필봉으로 남기련다.

내가 선택했던 어떤 행위에 도 정당성을 부여해 보지 못한, 그저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수동적인 나를 재검열하며 힘들게 여기까지 왔다.

생선원에서 흘러 노동자의

앞서가는 학생회

몸결에 들은 장담의 우렁찬 뿔소리에 눈을 떠보니 계유년의 봄은 해가 웃었다.

무엇보다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임신년을 마감하는 지금 새로운 계획들이 눈앞에 아른거린다.

미지근하게 끝났던 학생회

활동(학술)도 조직을 더욱 강화하고 부서의 확장을 통해 질적·양적 발전으로 앞서는 학생회상을 제시해야지.

그리고 새로 들어오는 93학년 후배들에게 서로 공감할수 있는 문제제시를 통해 발전하는 상큼한 후배로 이끌어 가자.

김 하 영

<문과대 사회과>

또한 전공 공부에 도움되는

방법을 갈았던 신교석씨의 장소.

진정 다수를 위한 삶을 살때만이 진실로 자신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다면 어느 선배의 담담한 얘기를 뒤로하며, 결코 지식인의 책기가 아님을 다짐한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을 위한 삶을 추구하지 않던가-나역시 개인적인 보람을 느끼기 위해 들어갔던 신문사였으니까- 그것이 자신을 분해하는 것인 지도 모른채 그저 이기심만을 키워가고 있다. 탈수습이다.

자신의 귀에 이상이 있으면 제 아무리 자리불바퀴도 아무런 소리를 들을수 없다. 수습에서 정기자제로 자리 바꿈이 아니라 안으로 나를 다져서 내적인 변화를 가져 올 계기인 것 같다.

현실은 외면한채

대학의 낭만을 갈구하며

방황하는 지성으로

남길 거부한다

그 동안 정신없이 달려왔던 생활을 정리해야 한다. 비판을 위한 비판을 일삼으며 타성에 젖은 생활이 아니었는지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환상을 부숴내고 더 큰 전진을 위해 한 걸음 뒤로 물러 선다.

날이 지은 짐은 부당하면 벗어 던지지만 스스로 져진 짐은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란 걸 배우며 정기자의 짐을 진다. 참 선전일꾼으로 남기는 길은 하나다. 이제 더 이상 주저하지 않겠다.

견지 않는 양상으로 정론직필의 한길로 이 땅에 억압받고 착취받는 4천만 민중의 일꾼이 되리라.

<살림대 회계학과>

전문연구적 아르바이트를 통해 보람과 실력을 갖추어 희망한 계유년을 설계해야지.

유 정 민

<농과대 임학과>

독서통한 자기연마

새내기 92학번으로 동학의 새해에 첫 발을 들여 놓는지도 어언 1년여의 세월이 지났다.

이제 93학년 후배들을 맞이해야 할 선배로서의 내 모습을 생각해 보면 정말 세월은 흐르는 물과도 같다는 선인들의 말을 절감한다.

중학시절부터 문학에 남다른 관심이 많았던 나는 입학하고서 '과연 무엇을 해야하나'라는 망설임이 없이 입시준비로 그 동안 잊지 못했던 책을 다지는

'쟁이'정신

헤르만 헤세는 수레바퀴 아래서 인생을 배웠더니만, 난 술상위에 차박차 선배기자의 발에 짓밟히며 신문사 생활을 시작해야만 했다.

6개월이란 짧은 시간속에서 세상의 평지풍파를 이렇듯 그루 켜어보기도 힘들거란 생각을 해본다.

백백마리의 시절 그렇게도 그리던 캠퍼스의 낭만을 140자 원고지 칸 사이를 헤매며 찾아야만 했고, 시위현장의 자욱한 최루탄 연기속에서 보이지도 않는 피사체를 향해 셔터를 눌러대야만 했다.

노동자 대회 전야제가 열린던 서울대 노천강당 한구석에서 출장비 한푼없이 배고픔과 추위에 떨며, 고정간 카메라와 후배들을 수리하면서 이번엔 신문사 돌아가면 정말 다시는 출근하지 않을거라고 믿음을 다짐, 다짐했는데...

호트러진 내모습에

모진 채찍질을 하며

보다 성숙된 나를

다듬어 나갈것이다

끝내는 내발로 신문사로 출근하는걸 보면 신문쟁이의 길이란게 마약(?)과도 같다는 퇴임선배의 말이 실감난다.

강의 들어갔다. 취재하러, 기사쓰러, 술마시러 정신없는 사이에 성격은 멀어지고, 과친구들에게서 따돌림당하면서 남은 거라곤 피곤에 지친 몸 뿐이다.

그러나 나는 젊다.

'세파랑게 젊다'는게 한말천인데 재빠르게 글지 말고 가슴을 꼭 파라는 노랫말처럼 내가 선택한 일이고 내가 하고자한 일이었기에 다소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겨나갈 것이며 진정한 '쟁이'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법민족대회 취재를 위해 경주에서 23시20분발 청량리행 통일호열차를 입석으로 타고 상경할때의 일이다.

하계 휴가철이 겹쳐 기차는 발디딤 틈 없는 만원을 이루고 있었다.

나는 또한 민주청년회 회원 몇백명과 화살에 서서 함께 가게되었는데, 동이 터올뻔할 모



전 현 철 기자

두를 서거나 쪼그리고 앉아서 졸고있을때 변기옆에 앉아 있던 여성마비 환자로 보이는 회원 한분이 피곤에 지친 눈으로, 기대어 서서 졸고 있던 날 바라보며 불쑥 이탄말을 꺼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고생도 참민주 통일세상이 오면 맛있는 추억이 되겠조?" 난 그때의 신선한 감동을 지금도 잊을수가 없다.

이제 그 잔인했던 수습기간을 마감하며 더큰 책임과 막중한 임무가 부과될 것을 아는 나는 호트러진 내 모습에 모진 채찍질을 가하며 보다 성숙된 '기자'로서의 나를 다듬어 나갈것이다.

아무런 감정이야 수도없이 외치던 '정론직필'의 구호가 어느순간에 가슴깊이 와닿고 비로소 나는 동대신문에 몸담고 있음을 간절하게 느낀다.

<법정대 야간법학과>

권 정도밖에 보지 못했는데 계유년 새해에는 각각 두 권씩씩 이고, 지난 해에 출판하나마 새해에 학과에서 주최하는 학술제에 발표할 논문 한 편을 작성할 계획을 바탕으로 새해에도 한 편을 더 써야겠다.

그리고 주말에는 서울과 가까운 곳을 위주로, 방학때는 가까운 여행도 다녀가고 싶다.

또 무엇보다도 글을 많이 쓰고 싶다. 머리속에 떠오르는 생각으로서는 하고싶은 것이 정말로 많지만 한자씩 한자씩 하고 싶은 일들을 해가며 보다 성실하게 살아가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하여 보다 보람있는 대학생활을 하고싶고, 내년에 새로운 동학의 주인이 될 93학년 새내기 후배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배가 되어야겠다는 다짐해 본다.

구 인 모

<문과대 국문과>

◇동국가족의 신년 소망을 듣는다

학교발전 기대

동트는 새해를 맞이하는 요즘은 무척이나 가슴 벅차오르는 희열을 느낀다.

1년농사를 짓는 농부의 마음으로 결하려 삶을 설계한다.

내년에는 학교에서 교수들의 본분인 연구, 교육, 사회봉사의 역할을 교수회가 계약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뒷받침을 해주었으면 한다.

대학이 보다 생산적이고 희망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각 구성원 주체간의 화합과 협의를 통해 학문연구 요람인 대학의 본래기능을 회복해야 한다.

교수회 아니 학교의 발전이 곧 나의 발전이므로 신년계획을 교수회와 학교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싶다.

개인적으로는 가끔씩 취미생

활인 바둑, 등산을 지주해 희망찬 계유년을 일거하고 싶다.

이 순 울

<법과대 법학과 교수>

교수회 회장

노조강화에 전력

나는 신년을 맞으며 본교의 도약·발전을 기대한다.

우선 학교발전을 위해 교수·직원·학생들 동국가족으로 구성된 발전기구협의회인 '대학발전협의회'의 구체적 상을 정립하기 위한 진전이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우리 직원노동조합의 조직강화에 힘써야 할 것이다.

또한 노동조합의 모든 조합원들이 새해에도 노동조합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 줄것을 당부드린다.

장 운

<판재과·노동조합 위원장>

우정을 나누는 한해

92년은 다같은 한해였으나, 나에게도 대학생활의 첫1년이란 것만으로도 더없이 소중한 기억될 것 같다.

그 소중한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동기간의 정이었다.

이해타산과 이기와는 전혀 거리가 먼 우리 국과과 39명 동기와의 사랑은 나의 남은 대학 생활에 커다란 힘이 되어 주리라 믿고 있다.

그때서 새해의 계획이나 다짐은, 내게 베풀어졌던 동기들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갚아주고 싶다고 말하겠다. 비록 그 도수는 방 1개, 술잔을 같이하는 사소한 것이지마라도 내게는 그 어떤 거창한 새해계획보다도 우선하고 싶은 일이다. 따

다도 우선하고 싶은 일이다. 따

사회개혁 일조

92년 한해는 내게 첫 대학생활이라는 경험과 모순된 사회구조를 깨닫게 된 뜻깊은 해였다. 과생활도 열심히 했고, 또 공강간에 참여한 기억들은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이제 93년 계유년의 해가 밝았다.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워야 할 때이다.

과에서 풍물대장이 되었으니 풍물고실을 열어 후배들을 열심히 가르쳐야겠다. 또 우리 열을 계승하기 위해 정당투표를 배우고 싶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 공강간활동등의 참여형 현실을 바탕으로 사회개혁에 일조하는 것이 올해를 갖는 나의 계획이자 바람이다.

김 하 영

<문과대 사회과>

'92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아름다운 자연의 친구들(2) '한국의 나비'

여름 들날, 노로만 배추꽃밭을 날던 배추 흰나비를 기억하십니까? 아름다운 예쁜 나비, 푸른 숲 사이를 날던 나비들의 모습은 어린시절의 꿈처럼 우리의 기억 속에 생생히 살아있습니다.

날개에 무성한 창이 있고 그 모습이 화려한 수놓은 띠를 띠고 있는 유리창 따들씩 날아다니는, 단풍나무를 맴돌며 세련된 자태를 뽐내는 도사치나나비, 조팝나무 꽃 사이로 수줍은 듯 날개를 살짝 드러내는 시골치나나비, 그 선과 빛이 요염하고 매혹적인 북방기생나비, 날개에 어둡고(V)자가 깨무른 것처럼 보이는 북방기생나비, 태동을 타고 남쪽 열대지방에서 날아와 우리 나라에 자리잡은 벌선두리할나비, 날개에 커다란 눈문 10개나 가지고 있는 눈문그늘나비-우리나라에는 모두 251종의 나비들이 살고 있으며, 그 중 남한에서 볼 수 있는 것이 202종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전처럼 쉽게 나비들을 만날 수 없습니다. 나비가 날던 들과 주변에는 경작지가 조성되어 많은 농약이 뿌려지고, 나비의 집인 푸른숲은 차츰 사라지고 있습니다. 드문드문 색이 바랜 나비 한, 두마리가 우리의 주위를 맴돌 뿐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푸른 숲의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을 원하며,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 싶어합니다. 나무를 심고 가꾸며 푸른 숲을 지키는 마음이 없다면 푸른 숲, 푸른강의 친구들은 사라지게 됩니다. 나비들이 마음놓고 살 수 있는 곳, 우리 모두 즐겁게 살 수 있는 곳을 만들기 위해 유한킴벌리는 사회 여러단체들과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나무를 심어 우리와 자연이 함께 살 수 있는 푸른 강산을 만들고 가꾸어오고 있습니다. 유한킴벌리는 자연을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를 지키는 것임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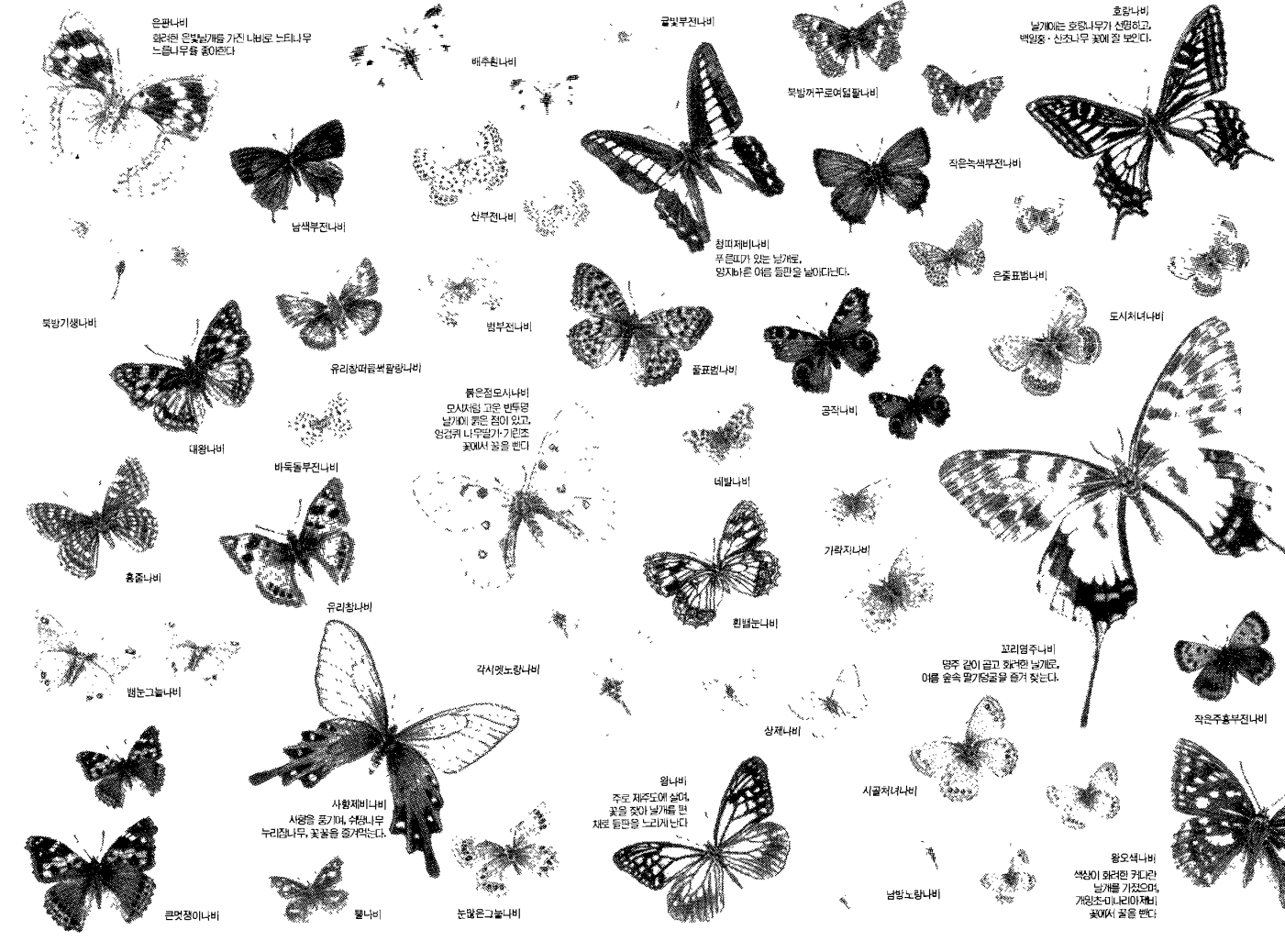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캠페인' 하는 일

- 년간 100만 그루 이상의 나무를 심고 가꾸는 기쁨을 조성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140여종의 기쁨을 통해 1300만 그루의 나무를 심고 가꾸어 왔습니다.
- 환경청 영토 나무심기(등동, 그린벨트, 나무관개지, 나무사생지) 등 청소년 환경교육 프로그램에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방음, 산로 등 통행이 환경에 대한 국민계몽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에 관한 여러분들의 실천사례를 모읍니다.

우리나라에는 자연을 지키고 가꾸며, 환경보호를 문수 실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유한킴벌리는 그 소중한 실천사례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실천사례를 보내주시면 신문, TV 등 매스미디어를 통해계몽활동을 전개해 나감으로써 우리 국민 모두의 공과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글을 보내주시면 모든 분들에게 나누어 드립니다. 유한킴벌리 7개 지사는 모든 환경관련 행사에 우선적으로 참여합니다. 모으된 글들은 '환경보존사생'으로 일간지에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자연환경보존 실천의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실 곳 : 35-090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7-33 유한킴벌리 홍보실
문의 전화 : 528-1053 ~ FAX : 526-1615



어린시절 꿈이 날고 있습니다. 푸른 숲 사이

올해 등록금 16~18%인상

교육재정확보방안 부재...학생회와 마찰 예상

93년 본교 등록금 인상률은 18%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2면>

이에 대해 제25대 총학생회는 열악한 교육재정타개를 위한 재단전입금의 지속적인 확충, 학내 재반문제의 학생참여 등을 주요골자로 등록금협의를 준비하고 있어 새학기에 학교 당국과 학생간의 마찰은 예년과 비슷한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기획조정실의 발표에 의하면 93학년도 대학원, 학부 신입생의 등록금은 17.5% 인상 예정, 예비학비를 제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재학생의 경우 학교 당국·학생간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인상률을 결정할 것으로 보이지만 예산조정과의 한 관계자는 “재학생의 등록금 인상률은 신입생과 동일할 거거나 최고 18%선을 넘지 못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학생회의 반발이 예상된다.

올해 대학원·학부 신입생 등록금 인상률이 17.5%일 때 각 계열별 인상액을 보면 인문·사회계열이 17.16%, 이학·체육계열이 20.14%, 공학·예능계열이 23.22%인 셈이다.

이같은 학교당국의 등록금 인상률결정은 지난 11월4일 전국61개 4년제 사립대학중 50개 대학 기획실·처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전국사립대 기획실·처장회의의 결정사항을 기본토대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자연상승분 6%와 물가인상 5%, 교육환경 개선비 5% 이상, 대학재정 개선

비 2% 인상 등의 세부적 요인을 들어 15~18% 인상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한편 등록금협의의 준비중인 제25대 총학생회(회장=최순호·국교4)는 지난 24일 유광진(정치외교학) 기획조정실장을 방문해 “학교당국이 학생과의 아무런 협의없이 신입생·재학생의 등록금 인상률을 결정해서는 안될 것이며 인상근거의 구체적인 사항을 공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유기획조정실장은 “신입생의 등록금 인상을 결정은 시간적으로 측

박한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며 사실상 예납형태이기 때문에 이후 구체적인 협의속에서 조정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올해초부터 이처럼 학교당국·학생간의 등록금협의에 있어 마찰은 다름아닌 사립대학의 교육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이라는 여론이 높다. 이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이 빈약한 상황에서 재단금의 전입금 확보방안 역시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1학기의 3분의2정도를 등록금 협의마찰

로 치달았던 지난해의 경우, 학내구성원들의 공통적인 견해는 “불필요한 역당소모”였다는게 중론으로 나타났다.

이와관련 올해 등록금투쟁을 준비하고 있는 제25대 총학생회 부총학생회장 이상호(아간 무역 3) 군은 “매년 되풀이되는 학교당국과의 마찰은 이제 해소돼야겠지만 이에앞서 학교당국·재단측의 확실한 교육재정확보방안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등록금협의과정에서 복잡한 문제로 대두되

었던 직원노조의 임금인상요구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즉 정부측의 총액임금제 적용이 사실상 변형없을 것으로 보여 임금인상요구와 맞물린 등록금문제는 학기초부터 또다시 정점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92년 국고보조금

6천4백만원 추가지원

92년 사립대학 시설·설비 확충 재정이된 국고보조금으로 본교에 7억8천35만1천원이 지난 11월에 지급된데 이어 12월 17일 6천4백만원이 추가지원됐다.

전국대학중 20개대학을 선정해 추가지원된 이번 국고보조금은 올해 학과평가대상학과인 화학과의 실험실습기자재구입으로 전액지원됐다.

동악어문학회 총회

신임 이사 강기진 교수

동악어문학회는 지난 12월15일 경진관(A101)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새로 회의를 이끌어갈 대표이사에 강기진(국문59)을 총·현 경시대 국문학과 교수를 선출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활발한 학술발표회와 동악어논논집 발간등 학회활동의 활성화 방안을 적극 모색했다.

동악어문학회는 본교 국어국문과 연구학회로 본교 국문화전통을 계승하고자 전국의 대학, 연구기관에서 국문학을 전공한 학자들의 모임인 학술연구단체이다.

◇14대 대선 공정선거감시단장 이문환(사회4) 군을 만나

“흑색선전물 적발등 공정선거 촉구”



14대 대통령선거에서 ‘민주대개혁과 민주정부수립’의 가치를 내걸고, 지난해 11월21일 발간인대회를 갖고 활발하게 활동해온 본교 ‘공정선거감시단’(이하 공감단)의 활동상황과 평가 및 의의를 공감단 단장 이문환(사회4) 학생회장·사회4) 군에게 들어본다.

—기간의 공감단 주요활동은
= 일단은 대중적 선전작업에 중점을 두고, 집단적 대신인 홍보활동을 벌여왔습니다. 후반기가 되면서와 가두캠페인 등의 작은 일에서부터 부재자투

표와 신고 선전, 공정선거 홍보용 팻지판에 등 선거열의를 가시화해내는 작업까지 단원들이 열성적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본교 공감단의 구성원인과 조직은
= 본교대, 사과대, 사법대를 주축으로 1백명 안팎의 인원이 함께 했으며, 아침조례를 통해 하루일정을 공유하고 단체별로 지역을 나누어 선전작업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약 1만여명의 중앙공감단과 연계를 가져 합법적 영역을 넓히게끔 했습니다.

—공감단의 가시적 성과를 들자면
= 부재자 투표율을 높임과 동시에 선거기간중 흑색선전물을 적발하는 등 공정선거 분위기를 외화해 냈다고 봅니다.

—공감단 활동의 평가 및

의의는
= 우선 대선의 역동적 판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해 반민자투쟁에 실패한 것이 아쉽고, 판권·금권선거의 직접적 타격이 되지 못하는 등 공감단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공감단활동은 대선투쟁의 일환으로써, 공정선거를 하겠다는 의지 자체는 돋보였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본교 공감단활동을 정리하면
= 자발적으로 참여한 학생들과 나름대로 열성적 활동을 벌이면서, 공감단 학생들이만큼은 이번 선거에서 보람과 개인적 성취감을 받아안았다고 생각합니다.

대중적 조직화가 미비했다는 아쉬움이 남지만, 공감단의 기본적인 의의를 이 기회에 공유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조호에 기자>

서울·경주 총학집행부 구성

제25대 총학생회는 지난 12월24일 집행부를 구성, 발표했다.

제25대 총학 집행부를 보면 △총무부장=라형진(농학4) △기획부장=윤승환(영문4) △문화부장=최주원(역교3) △연사부장=서세영(지교4) △투쟁부장=박형(정외3) △체육부장=이재룡(체교4) △학자부장=김수정(사학3) 등이며 선전, 편집, 학술, 인권위원장은 아직 미정이다.

또한 제10대 총대의원회(의장=이종범·법학3)도 집행부 구성을 끝마쳤다.

담당부서별 인선은 △사무국장=김기영(법학3) △감사국장=김대근(국문3) △선전국장=임미영(한문3) △감사부장=윤주원(수교2) 등이며 정책위원장은 미정이다.

제10대 총학생회 집행부인선(정보산장) △기획부장=김병진(법교3) △총무부장=박건호(정외3) △문화부장=류창조(무역3) △선전부장=강현진(미술2) △학자투위위원장은 이승준(정외3) △연사부장=이도원(정외2) △총무부장=최용식(정외3) 등이며 사회부장, 체육부장, 교과과정위원장은 아직 미정이다.

또한 제10대 총대의원회(의장=이종범·법학3)도 집행부 구성을 끝마쳤다.

담당부서별 인선은 △사무국장=김기영(법학3) △감사국장=김대근(국문3) △선전국장=임미영(한문3) △감사부장=윤주원(수교2) 등이며 정책위원장은 미정이다.

총학방중일정 발표

제25대 총학생회(회장=최순호·국교4)는 방중일정을 발표했다.

이번 겨울방학중 사업일정을 살펴보면 △1월4일 93학년도 시무식 및 총학집행부 인준 △1월5일~8일, 2박3일간 집행부 L·T △1월11일~15일, 2박3일간 운영위 L·T △1월15일~17일, 총학 제1회 제1차원인에서 겨울 농활행사 △2월11일~15일, 2박3일로 나눠 2박3일간 신입생 예비학교 등이다.

학과소식

철학과
차기 학과집행부의 교양을 위한 L·T가 오는 1월18일부터 20일까지 2박3일간 ‘평화의 집’에서 열린다.

오늘 새해아침에 부처님을 용서합니다. 이번일을 계기로 또다른 우를 범하지 말것을 당부합니다.

부실공사는 아닐까요(?)
○...온방을 건물들은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면 공사장처럼 녹아내리는데...

지난 18일 경주 구원 보일설 일 부 천장이 무너져 보이는 건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도시권 천장 누수방지 보수공사가 끝난지 얼마 안돼 이런 사태가 생겨, 혹시 온방을 건물들은 남방공사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워.

이를 측은하게 지켜본 한 학우 왈 “특 하면 터질것만 같은 건물. 기초과학관은 잘 돼야 될텐데...”

출근길에 마주치는 대기현황판

어제 저녁, 6개월 만에 만난 대학 동창과의 한 잔 때문에 오늘 아침은 유난히 서늘해야 했다. 통근버스가 시정앞을 지나질 무렵, 어느날처럼 눈에 들어오는 대기현황판. “현재의 대기환경상태 — 나쁨”

용인군 마북리의 상쾌함, 그리고...

복잡한 사내를 벗어난 통근버스는 용인, 마북리연구소 앞에서 나를 내려놓는다. 이곳에서 나의 업무는 엔진설계와 제어부분... 그래서 매일 지나치는 대기현황판의 “나쁨”이란 글자가 머릿속에 맴도는 것도 바로 자동차엔진과 관련된 나의업무 때문인지도 모른다.

린벤전 개발성공, 그 짜릿한 희열이후...

입사 후 3개월, 나는 작은 출발을 시작했다. 대기공해를 줄이는 초저연비 린벤전개발 프로젝트에 참여, 개발에 성공한 것이다. 비록 내가 한 일은 미미했지만 대기오염을 조금이나마 줄이는데 기여했다는 뿌듯함이란... 그래도 마음 한구석엔 “나쁨”을 가리고 있던 대기현황판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현황판 수치가 고쳐질 그날을 위하여...

출근길에 마주치면 찡찡했던 현황판 수치. 하지만 이러한 나의 노력과 작은 보탬들이 하나둘 쌓여 빛을 발하게 되는 날, 거리의 많은 차들이 부끄러워 차량으로 바뀌고 대기현황판의 수치가 고쳐질 수 있으리라.

좋은 환경, 좋은 차
현대자동차

해설 93년 1학기 신규교수채용 학생참여 배제 의도 엿보여

본교의 교수채용과정은 학과 자체내의 의사를 존중하며 학과심사과정중 서류심사와 공개강의에 학생 참여를 보장해 왔다.

이는 88년 학자투쟁의문과 91년 신규교수 채용에 관한 합의문에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번 93년도 1학기 신규교수채용과정에서는 학교측의 학생참여 제한 의도와 중앙교과위의 정책배우, 해당학과 학생들의 문제의식 결여등의 원인으로 무역학과와 철학과를 제외한 학과는 서류심사나 공개강의 등에 학생참여가 이뤄지지 못했다.

학교측은 올해부터 기존 1,2순위 분리추천제를 변경, 그동안 학생들과의 마찰로 실시되지 못했던 후보자 2인 무순위추천제의 합의안을 학교측에 요청했다.

이는 학과중심의 의사변형보

다는 학교당국의 결정권이 강화되는 형태다.

한편 이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가시적 이전제시는 보이지 않고 있으나 교과위체계의 정비 이후 마찰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무역학과는 지난달 14일까지 교수·학생참여하의 서류심사, 공개강의를 통해 두명의 후보를 학교측에 제출했으나 순위의 기준에 대해 교수·학생간의 의견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철학과도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달 14일 열린 후보자 학위논문 공개강의를 통해 학교측에 추천을 끝낸 상태다. 이외의 학과는 학생참여없이 학과교수내 심사 후 후보자 추천을 거쳐 교수채용에의 학생 참여 배제형태를 보이고 있어 올해 총학생회 교과사업 전개에 커추가 주목된다. <취재부>

도서관 도서대출 전산화 공사

본교 중앙도서관(관장=홍영배·사학)은 4천6백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불교학 자료실의 공간분리및 도서대출 전산화공사 실시를 위한 공사를 지난 12월14일부터 24일까지 실시했다.

이번 공사는 △불교학 자료실의 공간분리 △출입자관리및

도서대출 업무 전산화를 위한 도서 바코드 부착 △실내 조명공사 △1층열람실 방음벽 차단공사 등이 진행됐다.

한편 불교학용 매장인 심우장 내부확장과 시설 확충을 위한 공사가 지난 12월 14일부터 실시돼 오는 12월9일까지 한시적으로 휴업한다.

농대 실습시설 확충자금 학과간 배분문제 타결

특정학과 위주로 편중돼 물의를 빚었던 ‘농과대학 실험실습시설 확충자금’ 문제가 지난 12월 4일 타결됐다.

총 1억2천만원의 실험실습비 배분이 농과대 학과간 합의로 재조정되었다.

조정된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비를 보면 △임학과 2천5백90만원(21.5%)에서 3천3백90만원(28.25%)로 약 7%인상 △농학과 3천7백만원(30.83%)에서 3천3백만원(27.5%)으로 인

하 △농업생물학과 5천3백만원(44.17%)에서 4천5백만원(37.5%)으로 인하 △농업경제학과 1백10만원(0.92%)에서 5백10만원(4.25%)으로 인상등이다.

이와관련 제25대 농과대학(회장=박준·임학3)은 성의있는 조사작업에 의한 예산실행과 공정분배와 예산 집행에 있어서의 학생참여라는 기본 원칙을 전지한다고 밝혔다.

대선승리 기념법 뒤통

○... “때를 놓치지 않는 판단력” “몸을 아끼지 않는 행동력”의 YS를 대통령으로 모신 민자당이 그 순발력을 요급대 유감없이 발휘했다고 부산지역 기관장 대변회의를 도정한 국민당 관계자들에 대해 승리자로서의 위치를 판단/ 차기 국회에서 통신 기밀 보호법을 보완한 ‘도정방지법’을 제정할 방침이라며 그 거침없는 행동력을 자랑.

이에 본 회전문대자 한마디 “YS가 도정방지법보다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사항의 성실한 이행에 판단력과 행동력을 발휘해 주었으면...”

왜곡으로 먹고사는 언론
○... “결판”의 지도자空三

씨가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회회라락하는 언론사가 있는데...

알아 본즉 72년의 골죽과 아부의 역사를 자랑하며 이번 대통령선거에서도

왜곡·편파 보도 일삼는 ‘YS 장학생’의 보장된 5년(?)

변함없는 충성과 아첨을 펼치고 통곡당에 정본곡필의 불버림(?)을 내리는등 국민을 위한 언론사인지 민자당을 위한 언론사인지 온 국민을 이원실색케 한 C일보사라고 이에 민주자살당의 압송을 지켜보던 한 학우 “참언론을 조종하는 曠謬일보사의 YS 장학생들, 앞으로 5년간은 호강하겠다”며 너스레.

공감단의 참여
○... 지난해 한국고속철도공단측에서 꿈꿔온 경주캠퍼스 두동맹대기(?)의 밑거름이 프로젝트는 범

동국인의 힘에 의해 산산히 부서졌는데...

범동국자원에서 거세게 전개된 반대운동의 확산이 두려웠는지 공단측과 민자당측은 진정서의 회신을 통해 경주권노선안의 철회·변경을 전격적으로 선포

공단측의 노선수정을 대환영(?) 하면서도 애중어린 새해 인사 한마디 “공단측의 과



■1990년 7월 입사
마북리연구소 엔진설계부 설계 2과

이 주한

이주한氏の

“지우고 싶은 대기 현황판”



한사 25년
HYUNDAI 인간·지구·꿈 행복을...③

우리의 차문화

커피향에 가리워진 전통차

원두커피 즐기며 전통차 외면

이미 차의 대명사가 된 커피에 우리의 고유차는 소외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따뜻한 사람과...' 함께하는 차는 녹차가 아닌 커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 커피의 패해성이 대두되고 우리차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는 했으나 커피의 수요를 반감시키지는 못했다. 오히려 자판기등의 인스턴트 커피를 즐기던 학생들이 이제는 갖가지 종류의 커피를 판매하는 커피전문점을 찾고 있다. 이에 발맞춰 외국에서 직수입한 원두커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전문업자들이 최근 몇몇월사이 연이어 문을 열고 있다. 이런 추세는 본교 근처의 커피점의 잇따른 개점에 따라 나타나고 있는데 후문쪽으로 내려가다보면 '쏘노' 'C&M'등의 대리점 형식의 원두커피점과 '트라비' 'what's up'등의 업소들이 최근 문을 연 커피전문점들이다. 이들은 서구풍의 현대식 인테리어와 기호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커피를, 그리고 1천원에서 1천5백원정도의 쉼 가격으로 학생들의 수요를 겨냥하고 있다. 학내에 마땅한 휴게실이 없는 상

태여서인지 이곳을 찾는 학생들은 갈수록 늘어만 가고 있고 조금 고급스러운 이태리풍 거품커피 '카푸치노'에서부터 위스키가 섞인 '로얄커피'까지 다양한 커피를 즐긴다. 압구정동의 문화세대가 풍기는 자극적이고 달콤한 것만을 찾는 문화가 배어나오고 있는 것이다. 또한 사회의 외세지향적이고 우위를 잃어가는 것에 대한 반감으로 올바른 우리문화를 찾고자 생활문화운동을 주도적으로 벌였던 학생들이 이제는 우리 먹거리에 대한 주인의식이 낮아짐을 엿볼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아직 몇몇의 학생들은 만남의 장소를 선택하는데 있어 우리 차를 마실 수 있는 곳을 선택하기도 한다. 그들이 학교 근처에서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전통 차집은 후문쪽에서 충무로역쪽으로 꺾는 곳에 자리한 '녹차방'뿐이다. 이곳은 지난 88년에 처음 문을 열었으며 녹차, 홍차, 대추차, 유자차를 비롯해서 수정과, 식혜등 우리차를 접할 수 있는 곳이다. 작은 공간에 나무탁자가 놓여있고 벽에는 달, 수묵화등이 내걸려 원두커피점의 감각적인 인테리어와



△학교 근처에 원두커피점이 호황을 누리며 학생들의 수요를 끌고 있는 반면 우리차를 판매하는 전통차집을 찾는 이는 드물다. 녹차방은 은은한 계곡향이 실내를 가득 감싸고 있다. 이곳 운영을 맡고 있는 민정희씨는 본교 학생들이 원두커피점을 선호하는 이유에 대해 "싸고 간단하고 달콤한 감각적인 맛 때문이겠지요"라고 말하며 "하지만 학생들이 우리 차의 진정한 맛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덧붙였다. 모든 차를 직접 준비하는 민씨는 "수정과의 경우 최소 5시간을 끓여야 하고 필요한 계피, 대추등의 재료도 경동시장에 나가 구입해 들는 등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커피

문화단신

공연안내

△노래를 찾는 사람들... '한국 근·현대 노래 80년사' - '끝나지 않은 노래'영을 공연. 고금·대중·민중음악의 시기별 형상화와 각 시대의 특징적 문화현상의 조망. 음악극적 형식에 배우와 유창. 영상이 다양하게 결합되어 기존 노랫말의 이미지를 충분히 살려낼 것으로 보인다. 1월 18일부터 21일까지 7시, 화, 수, 목 4시/7시. 문예회관 대극장 338-99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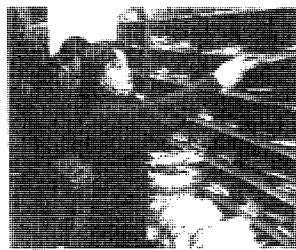
강습회

△극단아리랑... 지금까지 매년 실시해 온 강습·문화교실을 정리·보완하여 이론과 실기를 동시에 익힐 수 있고, 기타 행사나 공연에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한 문화학교. 교과목은 연기, 아동극, 춤, 풍물 등이다. 1월 12일부터 2월 19일까지 극단 아리랑 연습실. 764-1654.

회원모집

△민족문화작가회의... 민족문화의 대중화와 저변확대를 위해 '독자위원회'를 신설, 회원 모집함. 대상:문학을 애끼는 모든 이. 가입방법:연회비 1만2천원을 국민은행 019-01-0557-502 예금주 결정원으로 입금한 후 작가회의로 연락하면 가입원서를 보내줌. 회원복전·간담을 발송. 행사 초대, 등단추진 등. 313-1488. 392-1838.

겨울밤 흘리는 아르바이트 현장을 찾아



우편물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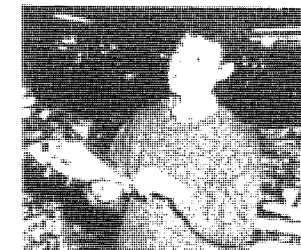
이기인 (지교3) 양

'젊음은 행동으로 표현'때 아름답다고 아르바이트가 단지 시간벌이 용이 아닌 사회생활을 구체화시키는 매개라는 이기인(지교3) 양.

그된 일통해 그뿐지 노고 알게돼

일일학습지 체점등의 단순 아르바이트를 경험해 보았으나 관공서에서 일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일할때 조심스러워진다고. 취업과를 통해 아르바이트를 구한 이양은 강남 우체국 우편물 분류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우편분류작업을 하는 고된 업무 속에 파묻혀 있다. "주소나 우편번호를 제대로 기입하지 않아 곤란할때가 종종있다"며

이제 그 의미가 가슴 한구석에 허상이 아닌 실제로 다가 온다. "단순직이라 해서 형식적으로 일하는 것보다 이왕 하는일 열심히 하는 것이 자신에게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아르바이트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거듭 강조한다. 취업준비의 바쁜 생활 속에서도 우체국계실 문을 열고 나가는 이양의 발걸음이 무척이나 가벼워 보인다. <在>



완구 판매원

신만길 (행정2) 군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는 신군. 아르바이트로 번 돈으로 형편이 어려운 친구에게 도움을 주고 그동안 보아두었던 것과 보태 할머님 여행 행 드려드리려는 계획을 세워 놓았

알맞은 소비위한 경험 될 것

"크리스마스나 연말연시가 있어서 무척 바빠요. 식사도 서서 해야 할 정도로요. 당연히 말도 많이 해야 하나요. 목도 많이 아프고요" 조씨는 힘든 점을 이야기하는 그는 그레도 아이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자신도 기쁘다고. 대학생은 주로 소비충이라 할 수 있는데 자기가 직접 현장을 뛰어들어 경험을 해보면 알맞은 소비를 할

디고 웃으면서 자신있게 이야기한다. 아르바이트를 통해 신성한 노동의 가치를 체험하기 위한 시간과 땅의 투자에, 또한 자신의 땅의 결실을 남에게 베풀 줄 앞에 결코 인색하지 않은 그의 일하는 모습에서 즐거움이 따뜻함을 느끼는 것은 어쩔당연하지 않을까. <仁>

지상전시

구족화가가 그린 신년 연하장



구족화가(口足畫家)란 선천적이거나 혹은 불의의 사고와 질병으로 인해 신체적 장애를 갖고 있지만 움직임 수 있는 입과 발가락으로 삶의 의지를 화폭에 담아내는 예술가들이다. 이들이 사회의 냉대속에서 자립을 위해 만든 구족작가 협회에서는 신년연하장과 달력에 구족화가의 작품 6점을 담아 판매하고 있다. 연하장이 이웃에 사랑을 전하는 것이니 만큼 삶에 대한 사랑이 묻어있는 이들의 연하장을 보낸다면 이보다 따뜻한 일이 어디있을까. <문화부>

<박수로 기자>

해외여행 서류

겨울방학의 처음을 아무런 계획없이 흘러 보낸 이라면 한민족 자신의 식견을 높일 수 있는 해외여행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그러나 막상 서류의 복잡함을 생각하면 난감해지기 십상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여행사들이 까다로웠던 서류절차를 대행해 주고 있어 시간도 단축되고 여행자는 여행사에서 요구하는 서식만 갖추면 10일내에 모든 서류가 구비될 수 있다. 일반해외여행시, 여권과 해당국가에 준하는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여권에 필요한 서식은 주민등록 등본 2통, 주민등록증 앞뒤 복사본, 사진 10매와 도장만 갖추면 1주일만에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비자는 중국과 같이 외부부 허가를 받아야 하는 까다로운 곳도 있지만 구 소련이나 미국등은 6가지 정도의 서류를 준비·신청하면 곧 발급받을 수 있다. 문제는 여성이나 군번자를 제외한 군미필자의 경우인데 이들은 자신의 해당지방 방무청에서 국외여행 허가신청서를 추가 구비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한편 어학연수나 해외유학은 초청장, 재학, 졸업(예정) 증명서 등 5가지 서류를 갖추어야 하는 등 번거로운 점이 많다. <문화부>

계유년

▲계유년(癸酉年) 새해이침에도 마음이 부거운 사람이 많다. 우리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이 그렇다. 제14대 대통령선거에서 패배한 후보진영도 그렇다. 그리고 이시대의 변혁과 민주사회를 꿈꾸는 민족민주운동진영에게도 새해아침은 무겁기만 하다. 그런데 우리의 세시풍속에는 덕담(德談)이란 아름다운 전통이 있다. ▲'올해에는 승진하시오' '올해에는 생남하시오' '올해에는 돈을 많이 버시오' 등과 같이 상대방에게 알맞은 반가운 말을 들려주는 것이다. 직접 대화로도 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는 편지로도 한다. 계유년 새해아침엔 아마 한 정치인에게 바라는 국민의 덕담이 가장 크게 들릴 것이다. 그 한 정치인은 이번 대선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은 분이기도

하고 30년이 넘도록 민주화를 위해 투쟁한 분이기도 하다. 더 중요하게는 문민(文民) 정치를 처음 시작할 차기 대통령이란 점이 다. S대 아무개 교수의 말을 빌리자면 그분은 닭을 잡아먹는 살랭이소굴에 들어가 그 소굴을 순화시킨 'XX식' 한국정치의 모델을 창조했다는 위대한 분이다.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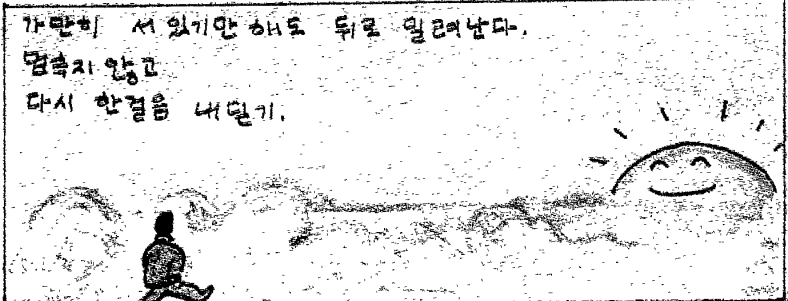
계유년 아침에

"닭의 목을 비틀어도..."

가 신민당 총재로 민주화투쟁에 온몸을 던진 시절, 민주화를 갈망하는 국민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었다.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이 말의 참뜻은 누구보다 그분이 잘 알고 계시다. <炳>



최경민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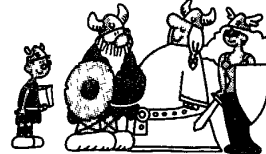
謹賀新年



행복이 가득한 새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조선맥주 주식회사 임직원 일동

60
1933-1993



크라운의 새로운 캐릭터, '해가' 전 세계 1,600여개의 신문에 만가되어 판매되는 Dick Brown의 만화 'Hagar The Horrible'의 주인공 맥주를 좋아하는 호랑이 성격의 베이징곰이다. 가족으로는 아들 해랑, 부인 해가, 딸 호니(하루부)가 있습니다.